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및 출연자 특성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진 명 지

2014年 2月

#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및 출연자 특성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高 榮 哲

秦 明 池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秦明池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A study on Jeju Area TV debate program's  
theme and its panelist characteristics

Myeong-Ji Jin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Churl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February. 2014.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k Jin Choi, Prof. of journalism.  
.....  
.....

.....  
Date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4
1. 토론프로그램의 개념 정의 및 특성 .....	4
2. 토론프로그램의 기능 .....	6
1) 의제설정기능 .....	6
2)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	8
3. 선행연구 고찰 .....	10
1) 선거 토론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개관 .....	10
2)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및 출연자 선정에 관한 논의 .....	13
III. 토론프로그램의 역사 .....	17
1. 한국토론프로그램의 역사 .....	17
2.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역사 .....	19
1) KBS제주방송총국 토론프로그램 .....	19
2) 제주문화방송(제주MBC) 토론프로그램 .....	21
3) JIBS 토론프로그램 .....	22
IV.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3
1. 연구문제 .....	23
2. 연구방법 .....	23

1) 분석대상 프로그램 .....	23
2) 분석기간 및 데이터 수집 방법 .....	24
3) 주요이슈 검토 .....	25
4) 분석방법 .....	27
3.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와 측정 .....	28
4. 신뢰도 검증 .....	33
V. 분석결과 .....	34
1. 제주지역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특성 .....	35
2. 제주지역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	37
3.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	39
4.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	48
5.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	55
1) 방송사별 출연자의 성별 차이 .....	56
2) 방송사별 출연자의 연령 차이 .....	57
3) 방송사별 출연자의 직업 차이 .....	59
4) 방송사별 주제(대분류) 차이 .....	62
5) 방송사별 주제(소분류) 차이 .....	64
6) 방송사별 분석기간 내 주요이슈 주제 차이 .....	66
7) 방송사별 주제특성 차이 .....	67
VI. 결론 및 제언 .....	68
1. 결론 및 논의 .....	68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71

[참고문헌] .....	73
[Abstract] .....	77
[부록 : 코딩지] .....	80

## 표 목 차

<표4-1> 제주지역 방송3사 TV 시사토론프로그램 .....	24
<표4-2> 2010~202년 제주지역 주요이슈들 .....	26
<표4-3> 분석유목 .....	28
<표4-4> 주제 분류 유목 .....	31
<표4-5> 신뢰도 검증 .....	33
<표5-1>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 회당 평균 출연자 수 .....	34
<표5-2>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특성 .....	36
<표5-3>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	38
<표5-4> 시도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41
<표5-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공무원 수 .....	42
<표5-6> 제주특별자치도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수 .....	42
<표5-7> 방송사별 출연자 성별 분포 현황 .....	55
<표5-8> 방송사별 출연자 연령대 분포 현황 .....	56
<표5-9> 방송사별 출연자 직업 분포 현황 .....	58
<표5-10> 방송사별 주제(대분류) 분포 현황 .....	61
<표5-11> 방송사별 주제(소분류) 분포 현황 .....	64
<표5-12> 방송사별 주제특성 .....	67
<표5-13> 방송사별 출연자 태도 .....	68



## 그 립 목 차

<그림5-1>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출연자의 성별 분포 .....	39
<그림5-2>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의 성별 분포 .....	40
<그림5-3>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의 성별 분포 .....	40
<그림5-4>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출연자 연령별 분포 .....	43
<그림5-5>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 연령별 분포 .....	43
<그림5-6>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 연령별 분포 .....	44
<그림5-7>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출연자 직업 분포 .....	45
<그림5-8>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 직업별 분포 .....	46
<그림5-9>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 직업별 분포 .....	46
<그림5-10>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	48
<그림5-11>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	49
<그림5-12> 제주MBC <시사진단>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	49
<그림5-13>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주제(소분류) 분포 .....	50
<그림5-14>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주제(소분류) 분포 .....	51
<그림5-15> 제주MBC <시사진단> 주제(소분류) 분포 .....	51
<그림5-16>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	52
<그림5-17>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	53
<그림5-18> 제주MBC <시사진단>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	53
<그림5-19> 각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	54
<그림5-20> 방송사별 출연자들의 성별 분포 비교 .....	56
<그림5-21> 방송사별 출연자들의 연령별 분포 비교 .....	57
<그림5-22> 방송사별 40대 이상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	57
<그림5-23> 방송사별 교수·전문가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	59
<그림5-24> 방송사별 교수·전문가·공무원·정치인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	60
<그림5-25> 방송사별 정치·경제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62

<그림5-26> 방송사별 환경오염·경관훼손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65
<그림5-27> 방송사별 주요 이슈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66
<그림5-28> 방송사별 주제특성 비교 .....	67
<그림5-29> 방송사별 출연자 태도 비교 .....	68

## 국문초록

###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및 출연자 특성에 관한 연구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표출함으로써 해당 이슈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수용자들은 시사토론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생기게 되며 이것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방송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적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장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방송3사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이 토론프로그램의 설치목적인 올바른 공적인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출연자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TV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지고 있는 주제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표하는지, TV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방송3사인 KBS제주방송총국, JIBS, 제주MBC의 각 시사토론프로그램 <집중진단 제주>,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시사진단>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잡았다.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이 2년간 방송한 총 244회 분의 방영 자료를 갖고 그동안의 출연한 출연자의 성별, 연령, 직업 그리고 주제 유형, 주제 특성 등을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무원 수(2013년 1월 31일 현재 기준)가 총 공무원 수 4,263명 중 1,263명으로 총비율 29.7%를 차지하였다. 또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의 경우도 전체 511명 중 56명으로 11%였다. 이런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별을 분석해본 결과 시사토론프로그램 여성 출연자의 비율은 6%~7%에 그쳐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연령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40대, 50대의 연령층이 압도적이면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거의 담지 못했다.

출연자의 직업군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교수와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이상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정치와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문제가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기간 내의 주요이슈로 떠올랐던 20개 주제들 가운데서는 13개의 주제가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로 다루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탐라대 부지 매각 논란’, ‘우근민 인사정책’, ‘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비상’, ‘제주지역 물가상승률 전국 1위’ 라든지 ‘제주도’ 각종 개발사업의 비리 문제’ 등의 문제점을 다룬 주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주제특성을 보더라도 갈등·논쟁적인 주제 보다는 비갈등·비논쟁적인 주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상호작용적 논쟁으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해법 찾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시사하듯이 제주지역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남성출연자, 그리고 공공정책과 지방행정, 제주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출연자의 대한 소홀함이 있으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사회적 공론장이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제주 도민들의 의견과 소통의 장으로서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출연자와 주제 선정에서 벗어나 성숙된 토론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띤 다양성을 갖춘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TV 토론, 시사토론프로그램, 지역방송, 공론장, 토론주제, 출연자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민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 공동의 문제를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였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자였던 시민들이 서로 동등한 주체를 갖고 자유롭게 문제를 토론하던 의사소통의 공간인 공론장이 시작 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정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나아가 매스미디어에서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시사성 있는 문제를 갖고 찬성과 반대 등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표출하며 사회적인 문제와 과정에 대해 토론자들 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들은 시사토론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생기게 되며 이것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저널리즘의 성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제에 따른 공인을 등장시켜 국민과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공인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며 시청자에게는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기능도 제공한다.

따라서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정기능만을 수행한다면 객관적 현실과 상징적 현실의 불일치를 가장 많이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소현정, 1995). 하지만 토론주제와 출연자들의 선택에서부터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론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오히려 역기능을 갖고 오게 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만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말의 과잉을 통한 무의미한 소음 생산의 도구화’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강태완, 2002).

현재 전국 지상파 방송은 매주 정기적으로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sup>1)</sup>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청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오락물에 편중된 제작비율을 보이겠지만 현재 의무편성 비율이 방송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도, 교양에 대한 정해진 제작 비중을 지키고 있다.<sup>2)</sup> 이러한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을 실현 할 수 있으며 방송의 저널리즘 성격을 강화 시킬 수 있기에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에서도 보도형식의 프로그램 가운데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방송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적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장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지역방송의 토론프로그램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지역의 민주주의적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김형곤, 2009). 여기서 공론장이란 하버마스(Harbermas)가 제기한 모델의 이론과 같다. 즉, 개인이 누군가의 제재 없이 공적인 문제를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상과 관계가 깊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전국은 물론 지역에서도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시청률도 저조하다. 학연과 지연 등이 연결된 좁은 지역 안에서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실상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아닌, 설명 위주의 좌담식 토론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내에서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매주 방영 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고 많은 부대비용이 따르는 다른 제작물에 비해 비용도 현저하게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작비 측면만이 아닌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여론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크게 썬당 등 특수한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현재 매주 1번 씩 KBS 1TV 심야토론, SBS 토론 공감, MBC 100분 토론이 방영되고 있다.

2)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이 정해져있다.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른 지상파의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보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오락 프로그램은 매월 전체 방송사의 50%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령 50조).

그래서 갈등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이슈의 공론화가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설치목적인 올바른 공적인 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와 출연자 선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영하는데 그 과정의 시작은 방송에서 다루지는 주제 또는 출연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방송의 소재나 주제, 또는 출연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말하고자 하는 관련 분야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알려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수렴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방송되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와 출연자가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는지는 국민 의사 수렴 정도를 따질 때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프로그램의 3)균형성에도 직결되게 된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과 제작에 차별성을 두는 것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다양하지 못한 주제 선정 역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의 균형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평가가 따른다면 사실상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의의가 훼손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주요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출연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또, 방송사별로 차이점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는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주지역 토론 프로그램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균형성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성질로 방송이 관련당사자나 방송대상자의 비중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논쟁 사항에 관해 다양한 의견의 공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쟁점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정했는지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김민환, 2009). 이러한 균형성은 양적, 질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해당사자에게 산술적으로 같은 기회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양적인 균형성이 될 것이고, 방송 보도 내용의 질적 수준과 그로 인한 실질적 효과 면에서 균형성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질적인 균형성이다. 방송의 공정성 심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균형성 개념이 양적인 면, 질적인 수준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주형, 2011).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토론프로그램의 개념 정의 및 특성

토론은 사전적 의미로서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제각기 의견을 논 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바로 토론이다. 영어에서 토론을 의미하는 ‘debate’의 어원을 살펴보면 토론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debate는 ‘분리하다’ 또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와 ‘전쟁’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debattuere (to beat, 치다)’에서 기원했으며 영어에서의 토론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대결 과정이다(이호은, 2008). 다시 말해 토론은 논쟁이라는 좁은 의미와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 뜻의 넓은 의미인 토의와도 가까운 의미가 있다.

정병수(1987)는 토론프로그램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서 토론, 대담, 뉴스해설, 인터뷰와 각종 토크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공통된 점은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토크프로그램과 토론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토크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만 쓰고 있다고 한다.

김우룡(1989)도 토론프로그램을 넓은 의미로 토크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도적 토크프로그램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토크프로그램과 토론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는 달리 외국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정의를 내리는 연구자들도 있다.

박익찬(2000)에 의하면 토론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는 토크쇼나 인터뷰 혹은 시사프로그램과 혼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말한다. 토론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토크프로그램과 구분되며, 질문과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담이나 때로는 논쟁도 가능한 의견교환의 형태를 띤 프로그램으로서, 아침시간대에 방송되는 생활정보 토크프로그램이나 혹은 연예오락 토크쇼와는 구별된다. 즉 일반적으로 토



토크프로그램은 연성의 소재를 가지고 재담형식을 띤 오락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이라면 토론프로그램은 시사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나 쟁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박경숙(2004)도 토크프로그램을 시사 토크나 시사토론프로그램, 혹은 선거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장르로서 비교적 ‘캐주얼’한 포맷으로 오락적 성격을 담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나미수(2003) 역시 토론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토크프로그램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토론프로그램은 토크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사토론프로그램과 선거 토론프로그램으로도 나뉘어서 볼 수 있다. 시사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 다른 견해들이 오고가는 시사토론프로그램과 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이뤄지는 선거 토론프로그램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7년 최초의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sup>4)</sup>을 시작으로 1987년 KBS의 ‘심야토론’이 선편을 쥐어 최장수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된 후 타 방송사에서도 차례로 많은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토론프로그램이 선거에 최초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 15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TV 선거프로그램이 이어오고 있다.

안광식(1987)은 토론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현상이나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임태섭(2001)도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의 포맷과 절차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적 현상에 관해 토론프로그램이 토론자들 간의 의견 제시와 분석, 평가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합의점을 찾거나 의견형성을 하는 과정에 기여를 하며 이를 통해서 여론통합의 기능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은 당대의 이슈와 다수의 관심이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루는 소재의 분야는 다양하다. 여러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만이 갖는 특성이다. 또한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사

4) 1976년 TBC에서 방영한 ‘동서남북’은 최초의 본격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람들 또는 집단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3자, 즉 청중에게 우열을 가리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유형들의 토론프로그램 중에서 논쟁의 형식을 갖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왜냐하면 현재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토론프로그램의 유형과 형식을 보면 쌍방향적인 형태로 논쟁형식을 띠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토론프로그램의 기능

### 1) 의제설정 기능

1972년 맥컴스와 쇼(McCombs & Shaw)는 의제설정 이론(the theory of agenda setting)을 제안했다. 이것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이론 중의 하나이다.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주요 이슈들이 실제로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수용자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효과연구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최근에는 초기 연구에서 다룬 공공 이슈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자 등 인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 공적 인물들이 공중에게 어떤 인물로 묘사되는지, 그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제설정 이론이 적용되어 왔다(이혜연, 2011).

이혜연(2011)에 의하면 의제설정 이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고 한다. 하나는 언론이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문장(gatekeeper)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개인의 직접 경험 밖에 있는 복잡한 정치적 세계의 사건과 사안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의제설정 이론은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먼저 언론은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현실의 중요한 문제

를 선택하고 만들며(filter and shape), 한편으로 수용자는 언론의 여러 사항 중 특정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강조하는 사안을 더 현저(salient)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매체가 특정 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공중의 주의를 그 이슈에 집중되고 여타의 이슈는 관심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가 뉴스나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주제(미디어 의제)가 공중에게도 중요한 주제(공중의제)로 되는 것이다.

주제의 선택이란 측면에서 게이트키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설정은 뉴스 전달의 맥락을 정의하고 토론의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제설정은 이슈선정 단계와 선정된 이슈를 제공하는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수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되며, 두 번째 단계는 그 이슈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제공방식의 문제와 관련된다. 말하자면 어떠한 범위의 관점, 상징, 질문 등을 선택해서 특정한 뉴스 주제나 토론프로그램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가 또는 그들의 정당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입증시키는가 하는 것이다(김명철, 2008).

따라서 의제설정 기능에 의하면 방송사에서 어떤 토론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은 이를 중요하게 혹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 일단 시청자들은 많이 다루는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TV 시사 토론프로그램의 의제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2003)는 제16대 대통령선거 TV합동토론을 중심으로 TV토론에 나타난 의제가 수용자의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대체로 TV 토론에 나타난 이슈는 수용자의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수용자의 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은 추상적인 이슈보다는 구체적인 이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경보(2006)도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수용자의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BS <시시비비> 토론프로그램 방청객 60명을 대상으로 토론 전과 토론 후에 토론 쟁점에 대해 방청객들이 어떠

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청객(수용자)들은 토론 패널의 설득력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평가가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지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또 토론 출연자들이 주고 있는 정보력의 중요성은 상당하며 이는 시청자들의 이해관계와 태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 2)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현대 민주사회에서 토론은 정치 과정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믿음, 가치를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토론은 상호 이해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유용한 사회적 조정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를 그 발원에서부터 공적사안에 대한 자유롭고 능동적인 토론을 하는 정치체계로 이해한다면 토론프로그램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박승관, 2000).

장원호(1987)는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쟁의 공간과 공중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텔레비전에서 이뤄진다고 하였다.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을 벌이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상의 자유공개 시장’ 원칙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버마스(Habermas)가 제기한 공론장이다.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하면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공적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공간, 즉 사회와 국가를 중재하는 공간으로서 일치된 여론을 위한 비판적 합의를 형성해내고 국가로 하여금 시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나미수, 2003). 많은 연구자들은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미디어의 공론장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야기해왔다. 김은정(2002)에 의하면 공론장은 개인들이 공적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공간, 즉 사회

와 국가를 중재하는 공론장으로, 일치된 여론을 위한 비판적 합의를 형성해 내고 권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미영(2004)도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이 토론자의 자유로운 의사 발현 및 시청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론과 논쟁, 정보 확산을 위한 필수적 공간을 뜻하는 공론장 모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미수(2003)는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대로 된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토론프로그램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의 비중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TV 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그 동안의 연구<sup>5)</sup>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용호(2007)는 하버마스의 토론적 민주주의론이 TV 선거 토론프로그램에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를 통해서 토론프로그램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모에 대해 말해왔다. 장명학(2003)의 경우도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통한 토의 민주주의의 연관성과 함께 토론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미디어의 공론장에 대한 역할과 토론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반면,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거리가 먼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도 다양했다. 김훈순·김은정(2002)은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 4편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 달간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을 공중들에게 그대로 축소하여 보여주는 볼거리일 뿐 공

5) 공론장으로서의 지역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김형곤, 2009).  
공론장으로서의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미수, 2003).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김훈순·김은정, 2002).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 민주주의(장명학, 2003).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론과 TV선거공론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이용호, 2007).

중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형곤(2009)은 지역방송의 토론프로그램이 지역의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의 지상파방송에서 제작하는 두 편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2008년 7월 한 달간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방송의 토론프로그램이 지역 공론장에서 공중의 활발한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지역민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했고 상호작용도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나미수(2003)도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이 텔레비전의 저널리즘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프로그램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과거 연구에서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연 지역방송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3. 선행연구 분석

#### 1) 선거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개관

TV 선거 토론프로그램 정치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거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1960년 케네디(J. F. Kennedy)-닉슨(Richard Nixon) TV 선거토론 이후 정치적 전통이 되어 왔다.

이후 TV 선거 프로그램은 16년 뒤인 1976년에 다시 부활되었다(구경서, 2008).

1976년 카터와 포드의 TV 선거 프로그램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TV 토론이 개최되었고 대규모 전당대회 후보자 지명 및 예비 선거에도 다양하게 토론이 도입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오늘날 TV 토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토론은 선거운동의 제도화된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6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거름이 없이 대통령 후보자의 TV 토론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정두숙, 2005).

이렇게 미국에서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거프로그램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류홀드와 발렌타인(Leuthold & Valentine)은 선거 프로그램이 끝나면 언론은 오직 토론의 승자가 누구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며 누가 선거 프로그램을 이겼는가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sup>6)</sup>을 제시했다(Jamieson et al, 1993).

어느 후보가 토론에서 이겼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처럼 미디어의 보도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마클(Markle) 위원회 연구에 의하면 1988년 2차 토론이 끝난 직후 ABC가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들은 49% 대 33%로 부시가 듀카키스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그 다음날 많은 다른 뉴스미디어들이 이를 인용 보도했고 그로부터 5일 후 다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3대 1로 부시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송지현, 2002).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 프로그램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의 연구들도 있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캠벨(campbell)에 의하면 선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

6) 첫 째,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지지자 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 째, 후보자의 지지자 수가 같을 때는 열성 지지자를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 째, 지지자 수가 같을 때 보수적인 공화당 후보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수적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이고, 이러한 적극성이 토론을 시청하게 만들며 선거토론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송지현, 2002).

나타났다.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직후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지지율이 변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지지율로 돌아간다고 한다(Campbell, 2000).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 텔레비전 토론이 도입된 배경은 군중 동원을 통한 옥외 집회 방식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 운동과 이에 따른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더 빨리 더 멀리 전달하려는 욕구와 기대에 적합한 미디어의 필요성이 방송의 특성과 맞물려 기능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정대철, 1997).

TV 토론이 선거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5년 서울시장 선거였다. 이 후 TV 토론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법을 통해 의무화가 됐으며 2000년에는 시도지사 선거에도 텔레비전 토론 의무화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 됐다(정두숙, 2005).

실제 방송위원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 1천 4백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제선거관련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조사’에서 시청자들은 TV 대담·토론이 후보자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선거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송지현, 2002).

그러나 정두숙(2005) 외 많은 연구자들은 TV 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과연 결정적인 요인을 끼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또한 특히 선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토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선거 토론프로그램에 관련한 그동안의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선거 토론프로그램이 도입된 초기에는 주로 토론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연구(권혁남, 1998; 이종수, 1995, 2002; 송종길 2003)가 많이 진행됐다. 그 이후에는 정치담론 혹은 수사학적 분석(김인영·강태완, 2003; 김춘식·송종길·전영란, 2004; 김춘식·전영란, 2006; 전영란, 2007), 유권자에 대한 토론효과 연구(양승찬, 1999; 이강형, 2003; 이준웅, 1999, 2003; 정성호·이화생, 2006; 김연중, 2008)가 이뤄졌으며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송종길·박상호, 2006; 문재완, 2006), 선거 토론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정두숙, 2005; 이상철, 2007) 등의 분야로 연구 분야



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이은철, 2010).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선거 토론프로그램의 순기능과 문제점으로 나눠 살펴 볼 수가 있다. 우선 순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첫 째, TV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TV토론회에 등장한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정책제시, 비전제시, 능력, 지도력 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선출될 기회가 확대된다. TV토론 과정은 정치인으로써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 물론 유능한 인물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있지만 누가 유능한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은 TV토론정치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셋 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관한 정치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후보자들은 TV토론정치를 통하여 선거 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이에 관한 정보도 전파하게 된다.

다음으로 TV 선거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다. 첫 번째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딱딱한 진행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토론의 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와 셋 째, 후보자들의 이미지 조작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조작 문제란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제대로 볼 수 있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후보자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거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모든 후보가 공평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만들어야 하며 포괄적인 주제 선정이나 질문은 피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계화되고 형식화된 토론진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맷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

## 2)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및 출연자 선정에 관한 논의

국내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편

이며 연구의 대부분이 95년 서울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과 97년 대선 텔레비전 토론 등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김훈순·김은정, 2002). 그렇다보니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와 출연자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본 연구와 관련한 시사토론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형식과 제작과정에 대한 연구(강태완, 2002; 소현정, 1995)와 공론장으로서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김형곤, 2009; 김훈순·김은정, 2002; 나미수, 2003),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사회자와 토론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이은희, 2010),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수용자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현경보, 2006)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주제 또는 출연자 선정 실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김동윤, 2011; 홍성욱, 2006, 나미수; 2003)가 있다.

홍성욱(2006)은 국내 주요 지상파 3사의 TV 시사토론프로그램 KBS<생방송 심야토론>, MBC<백분토론>, SBS<토론 시사비비>을 갖고 2004년 3월부터 1년간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도 출연자와 주제의 다양성<sup>7)</sup> 정도에 주목했다. 우선 출연자의 경우 성별, 연령, 직업별로 나누고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로 크게 나눠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의 경우 40~50대의 남성 출연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의 경우, 방송 3사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분포도가 50%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동윤(2011)은 TV 시사토론프로그램 진단을 통해 현재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이루어진 지상파 TV 시사토론프로그램<sup>8)</sup> 주제들을 분석대상으로 삼

7) 다양성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자유로운 언론이 있어야 다양한 견해가 억압받지 않고 제시될 수 있으며 여러 상충되는 견해들의 치열한 비교 논쟁을 통해 진실은 발견되고 사회는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Mill, 1859).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다양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제시했는데 광고주나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사회를 대변하는 모든 뉴스(주제)가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왜곡된 언론이라 말한다(Kovach & Rosenstiel, 2001). 다양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류로 나폴리(1999)의 세 가지 다양성 개념이 있다. 나폴리는 다양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이 은유에 따라 다양성의 하위 개념을 정보원의 다양성(언론 종사자의 인구학적 다양성, 여성, 소수인종의 비율 등), 내용의 다양성(언론에 출연한 사람들이 인구학적 속성이 실제 인구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 사회 정치 문화적인 시각이나 관점의 다양성 등), 노출의 다양성(전체 프로그램에 걸친 수용자 분포도, 수용자 개인의 콘텐츠 소비의 다양성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8) MBC<100 토론>, KBS<심야토론>, SBS<시사토론>을 분석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았다. 그 기간 동안 다룬 주제들이 실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쟁점들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시사토론프로그램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안을 뒤로하고 설명에만 급급한 시사토론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부여된 시민적 기대와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쟁점을 토론의 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공시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미수(2003)도 국내 주요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KBS1의 <생방송 심야토론>, KBS2의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의 <100분 토론>, EBS의 <여론광장>이다. 총 분석기간은 2003년 3월 이후 두 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한 프로그램 당 각각 4회분씩 선정하여 총 16회 분의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포맷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 토론자의 특성, 일반인의 참여 형태, 여론형성 구조, 사회자의 역할, 주장의 성격, 주장이 수준, 주장의 근거제시 여부, 근거의 성격, 토론구조, 토론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운데 주제와 관련한 결과에서는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프로그램 모두 정치현안을 다룬 주제에 편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정치, 경제 등 심각하고 거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이 유사한 주제를 다룬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주제의 시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의제설정의 폭이 매우 협소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이 약 90%로 대다수를 차지해 남성지배적 특성을 드러냈다. 직업별에서는 교수와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직업군의 출연자 구성이 많은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EBS의 <여론광장>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의 수치가 가장 많이 차지함을 보였다.

홍성욱(2006)은 출연자가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게 이뤄졌다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어느 한 쪽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유형의 구성요소로 출연자를, 무형의 구성 요소는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주제와 출연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어떤 특정 분야와 계층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척도를 기준으로 정해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와 평소에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그로 인해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며 이것은 곧 어떠한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무시 할 수 없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사실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주제와 출연자 선정은 토론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성공을 위해선 매우 중요하지만 실상 한 쪽의 계층,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출연자는 남성, 직업적으로 교수와 정치인, 주제는 정치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TV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출연자 선정이 획일적인 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 되고 있는지, 각 방송사 마다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올바른 토론의 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Ⅲ. 토론프로그램의 역사

#### 1. 한국토론프로그램의 역사

토론프로그램은 다른 장르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구성과 형식 등에 큰 영고를 겪어왔다.

토론프로그램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1987년 6.29선언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토론프로그램은 그 성격과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공중파 토론프로그램은 60년대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다. KBS가 1962년 <TV 응접실>, <KBS응접실>, 1965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방영한 데 이어 TBC가 1965년 <이주일의 회견>, 1967년 <동서남북>과 1969년 <TBC 공개토론회>를 방영하였고, MBC가 1969년 <임택근 모닝쇼>, <젊은 대화> 등을 편성하면서 점차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의 토론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뷰 혹은 좌담, 대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중 TBC <동서남북>은 최초의 텔레비전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김훈순·김은정, 2002).

1970년대는 MBC의 <시사 레이다>라는 좌담 형식 프로그램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경토론>이 있었다. KBS도 <총리와의 대화>, <정부와의 대화>, <정당 토론회> 등을 1971년부터 각각 매년 방송 했다. TBC도 1967년 이후 계속하여 <동서남북>을 방영하였고 1971년도에는 교수들이 토론을 벌이는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1972년 TBC의 <동서남북>과 <대화>가 동시에 폐지가 되는 등 토론프로그램은 70년대 중반부터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이후 <대화>는 1973년에, <동서남북>은 1975년에 부활되었으나 논의의 심도는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기와 1980년대 초반에는 텔레비전 편성에서 토론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유신과 5공화국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실이 보여주는 현상이다(소현정, 1995).

1980년대 초반에는 KBS의 <90분 토론>을 시작으로 <역사의 증인>, <독점 여

성들의 9시>, <8시에 만납시다>, <시민법정>, <11시에 만납시다>와 MBC의 <이야기 좀 합시다>, <TV 독서토론>이 편성 되었다. 이 후 중반에는 MBC의 <일요광장>, <일요토론>, KBS의 <금요토론>, <시청자토론> 등이 편성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좌담 나열식의 형식이며 계도성이 짙은 프로그램이었다(정병수, 1987).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는 언론노조가 설립되고 통제가 완화되었다. 정치적인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고 논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언 직후인 87년 7월에는 KBS는 <금요토론>을 즉시 편성하였고 MBC는 8월에 <진단 87>을, 그리고 KBS <심야토론>이 같은 해 10월에 편성되었다. 이후 1988년 KBS <TV회견>, 1989년 MBC<시사토론> 등이 이어지면서 토론프로그램은 하나의 장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붓물 터지듯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한 토론프로그램은 민주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으며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모았다. 90년대에는 KBS의 <심야토론>과 <정범구의 세상읽기>, <쟁점토론>, <배유정의 터놓고 말해봅시다>를 방영하였고 MBC는 1998년 <생방송 MBC 대토론회>, <100분 토론>을 SBS는 1994년 <일요포럼>을 시작으로 1999년 <오늘과 내일>, <시사포럼>을 방송했다. 하지만 주로 아침 시간대에 편성하고 잦은 개편으로 인해 타 방송사에 비해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김훈순·김은정, 2002).

현재 2013년 가을 개편을 기준으로 방송되고 있는 공중과 3사의 토론프로그램은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일요진단> 총 2편이다. 과거 2001년 <토요화제 이야기 광장>, KBS 2TV <시사난타 세상보기>까지 총 4편이었던 거에 비해 토론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MBC는 <100분 토론>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SBS는 <토론공감>을 방영하고 있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역사상을 보면 인터뷰형식, 대담·좌담, 논쟁 형식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대담형식이 그 이후에는 논쟁형식이 두드러졌으며 6.29 선언 이전은 토론프로그램 정치적인 언론장악과 압력 때문에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선정과 그에 따른 비판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시 말해 토론프

로그래의 시사성과 기획의도와 벗어난 비판의식이 결여된 토론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뤘다. 그렇다보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형식에서도 토론이라기보다는 인터뷰나 좌담형식으로 정보 전달과 해설에 가까웠다. 하지만 더 이상 좌담 형식에 급급한 토론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새로운 논쟁형식의 시사 토론프로그램들이 계속하여 제작돼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단순히 고정화된 형식의 토론프로그램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장르가 변화,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2. 제주지역 토론프로그램의 역사

### 1) KBS제주방송총국 토론프로그램<sup>9)</sup>

1950년 9월 10일 개국한 제주방송총국은 1971년 4월 20일 TV방송을 개시하였고 1978년 7월 1일 역사적인 TV로컬방송이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 로컬TV방송 기념 특집으로 ‘도민의 광장, KBS에 바란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 각계인사를 출연시켜 대담 방송을 하였다. 이렇게 KBS제주방송총국이 1978년 7월 2일 처음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가 이뤄지기 이전까지 ‘도민의 광장’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후 1980년 12월 1일 컬러TV로 전환이 되면서 로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초기 3%에서 6%대로 확대 됐다. 1982년에는 도민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 토크 프로그램인 ‘이어도 광장’이 매주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45분간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관심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자를 출연시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이끌어내 큰 관심을 끌었다.

1984년에는 2TV방송이 개시되면서 본격토크 프로그램이자 제주개발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10년 후 제주도를 조명하는 ‘11시에 만납시다’가 매주 수요일 밤 11

9) KBS제주방송총국 창사 60년사를 참고하였다.

시부터 1시간가량 방영 됐다.

1989년에는 제주도의 제반 문제점을 헤집는 ‘도민과의 대화’가 1TV를 통해 집중 방송됐으며 제주사회의 현안문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함께 진단하고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제시를 모색한 ‘제주의 오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1990년대에는 관광과 감귤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1997년 특별생방송으로 ‘21세기의 제주관광의 미래’를 국내 유수의 관광전문가와 학자들을 출연시켜 방송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전망을 진단했다.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대는 새해 벽두부터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시작 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 본사에서 제작되던 생방송 심야 토론 시간에 제주만의 주제를 갖고 제주에서 직접 제작해 방영 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00년 7월 7일 ‘생방송 심야토론, 제주 월드컵 성공의 조건’, 2000년 7월 29일 ‘생방송 심야 토론, 국제 자유도시와 제주의 미래’, 2001년 2월 17일 ‘생방송 심야토론, 감귤대란 이제 시작 되었나’, 2001년 12월 29일 ‘2002 제주월드컵 성공 대회 도민 토론회’, 2001년 12월 30일 ‘생방송 심야토론 국제자유도시 출범, 성공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2002년 개편이 시작 되면서 10월 31일 첫 방송으로 ‘생방송 집중진단 제주’가 시작 됐다. 현재 KBS제주방송총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집중진단 제주’가 이때부터 시작돼 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지역 밀착형 소재 발굴과 각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목소리를 담아 내고 공론의 장을 만든 시사토론프로그램이다. 지역 일간 신문사와 공동기획을 했기에 방송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 지면 중계되기도 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심인 교수의 진행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지역 현안문제를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2) 제주문화방송(제주MBC) 토론프로그램<sup>10)</sup>

제주도 내 최초의 민영방송인 제주문화방송(제주MBC)은 1968년 9월 14일 회사명 남양방송(NBS)으로 라디오 첫 전파를 발사한 이후 1970년 8월 1일 제주 최초의 TV개국으로 TV시대를 열었다. 이후 1970년 10월에는 남양문화방송(MBC)로 바뀌었고, 언론통합 후인 1984년 1월부터 제주문화방송으로 변경되었다.

제주문화방송은 1970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특집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새마을 새살림’, ‘귀순용사와 함께’, ‘제2대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를 맞아’, ‘6.25 담화를 듣고’ 등으로 당시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향토 예술문화 보전을 위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월요 스튜디오’가 1985년 첫 신설 됐으며 1987년 10월 12일까지 이어져 왔다. 또한 1980년대 역시 ‘제주인이 본 제주의 미’라는 주제를 갖고 전문가가 본 환경훼손 실태와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1990년대에는 1992년부터 93년까지 한라산 보호 차원의 연중 캠페인이 펼쳐졌다. 그 중 1992년 5월 1일에는 특집으로 ‘한라산을 사랑하자 대 토론회’가 방송 됐는데 이는 한라산 생태계 파괴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해냄으로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5년에는 ‘일요대담’을 신설하여 지역의제에 걸맞은 토론 대상자를 초청해 대담을 통한 현안중심의 실태를 찾아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렇게 1995년 4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일요대담’은 매주 일요일 아침 7시부터 7시 25분까지 25분간 방영 됐으며 96년 3월 3일까지 총 41편을 제작·방송하였다.

‘일요대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1996년 봄철 개편과 동시에 ‘제주포럼’이 신설 되었다. 기존 25분이었던 ‘일요대담’을 50분으로 확대하고 시간대도 일요일 아침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로 옮겨 본격적인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육성하였다.

---

10) 제주문화방송 30년사를 참고하였다.

‘제주포럼’은 1996년 3월 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97년 3월 2일까지 모두 37회를 제작·방송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5월, 지금의 ‘시사진단’이 시작됐다. 기존의 ‘일요대담’과 ‘제주포럼’과 같은 형식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제주문화방송의 대표 토론프로그램이다. 방송 시간은 80분으로 늘려 재편성 되었고 현재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부터 80분가량 방송 되고 있다.

### 3) JIBS 토론프로그램<sup>11)</sup>

JIBS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은 2002년 5월 20일 서울방송(SBS)과 방송업무협력 협정을 조인했다. 이로써 JIBS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은 SBS 가맹사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1일 후 JIBS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은 2002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 축구 개막일에 맞춰 천 전파를 발사하여 개국했다.

JIBS의 경우 시사토론프로그램 방송의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2002년 개국 한 이 후 약 7년 간 지역 내 시사토론프로그램이 편성 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4일 지금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이 방송 됐다. 이후 지금까지 JIBS 방송 내 유일한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프로그램은 현재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부터 70분가량 방송되고 있으며 기존의 찬반토론을 벗어나 도내 각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의 아젠다에 대해 논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1) 2012년 JIBS 창사 10주년 기념사를 참고하였다.

## IV.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정하고 제주지역 방송3사(KBS제주방송총국, JIBS, 제주MBC)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비교 분석, 주제와 출연자가 다양하게 선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은 ‘출연자’를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은 ‘토론 주제’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따라 토론주제와 출연자 선정에 차이가 있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방송 3사인 KBS제주방송총국, JIBS, 제주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각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지역 방송 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은 <표4-1>과 같이 2013년 12월 현재 매주 1회씩 1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방송3사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인 KBS제주 <집중진단 제주>,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MBC <시사진단>을 대상으로 삼았다.

<표4-1> 제주지역 방송 3사 TV 시사토론프로그램

방송사	KBS제주방송총국	JIBS	제주MBC
프로그램명	집중진단 제주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시사진단
토론주제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 주요 현안 주요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 주요 현안 주요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 주요 현안 주요 이슈
출연자	관련 주요 전문가	관련 주요 전문가	관련 주요 전문가
진행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삼인 교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박상수 교수	제주MBC 송원일 보도국장
형식	토론/대담	토론/대담	토론/대담
방송일시	화요일 밤 22:30~23:30	수요일 밤 11시 20분~12:30분	금요일 밤 23:10~24:30
방송시간	60분	70분	80분

## 2) 분석기간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와 주제 선정의 다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프로그램 모두 방송 기간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타당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KBS제주방송총국과 제주MBC의 경우 2002년부터 방송을 시작, 방송기간이 약 10년 정도인 반면 JIBS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되어 4년이 채 안된 기간이기에 세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조건을 통일시키고자 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작한 JIBS의 <직격토론> 시작 일을 기준으로 세 개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이 모두 방송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보았다. 본 연구가 주제와 출연자 선정에 있어 다양성 정도를 알아보는 것인 만큼 분석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선행연구인 홍성욱(2006)의 연구의 경우,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와 주제 선정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 분석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그 이유를 보면 분석기간이 1년 보다 짧을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논란이 오래 계속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오래

지속될 만한 대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왜곡된 분석 결과가 도출,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 더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 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연자나 주제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해당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방송 테이프를 입수하여 분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원고와 테이프를 입수하기는 어려워 차선책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페이지(다시보기 이용)를 보고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 3) 주요이슈 검토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사회변화를 이끌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선정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방송3사에서 매주 방영하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가 얼마나 시의적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표하는가가 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향성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의 방향성은 토론의 환경감시적 기능 수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김동윤, 2011). 다시 말해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하고 강한 이슈보다 단순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어간다면 시민적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기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주요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당시의 핵심이슈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신문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 3개의 지역신문을 갖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주요 현안을 살펴보았다. 종이신문을 일일이 확인 하는 것이 어려워 신

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 기사 상세검색을 이용했다. 상세검색에서 기간설정을 2010년 1월 1일~2012년 1월 31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전체기사 제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도된 순서대로 20위까지 키워드를 추출했다. 각 신문사 검색창에 추출한 기사의 키워드는 아래의 <표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4-2> 2010~2012년 제주지역 주요이들 (단위: 건)

	주요이슈 주제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합계
1	세계7대자연경관선정과 논란	1,172	801	904	2,877
2	해군기지 논란	667	797	1,289	2,753
3	6.2지방선거	756	882	958	2,596
4	제주특별법	223	261	235	719
5	구제역 비상	202	186	232	620
6	제주영어교육도시	154	186	195	535
7	신공항과 해저고속터널	110	145	113	368
8	한미 FTA	106	101	90	297
9	표류하는 혁신도시	104	91	72	267
10	영리병원	81	81	78	240
11	탐라대 부지 매각 논란	34	46	60	140
12	트램(노면전차) 도입	38	53	38	129
13	우근민 인사정책	36	48	31	115
14	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비상	34	36	35	105
15	해상풍력	20	31	46	97
16	아파트고분양가	20	42	32	94
17	경병사업	18	27	33	78
18	제주물가상승률 전국 최고	19	18	18	55
19	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비리 적발	15	20	18	53
20	우근민 최측근 감사위원장 내정	16	17	19	52

이 기간 동안 ‘해군기지 건설’, ‘6.2지방선거’에 관련된 사안이 한동안 각 신문의 대다수 기사로 떠올랐다. 또한 제주관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투입 등 논란이 야기 되면

서 선정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제주 감귤 산업 등 농업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더욱 집중됐던 한·미 FTA에 대한 사안도 주요 이슈로 대두됐고 구제역 비상과 제주영리병원, 신공항 및 해저고속터널, 노면전차 도입, 제주특별법, 표류하는 혁신도시, 탐라대 부지 매각 논란에 대한 기사도 주를 이뤘다.

그 밖에도 제주물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위기에 놓인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며 우도정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내용과 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비상에 대한 문제들이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언급이 됐다. 아울러 경병사업, 해상풍력, 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비리 적발, 아파트 고분양가, 우근민 최측근 감사위원장 내정 등의 주요 내용들이 있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 본 제주지역의 중요한 현안들로 부상했던 주제들이 제주 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 상에서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를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4) 분석방법

분석 대상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의 출연자 및 소재의 다양성 정도와 시사토론프로그램 간의 다양성 정도 비교를 위해 가장 좋은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가 시사토론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분석 하는 것이 아닌 출연자와 주제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것인 만큼 질적 내용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은 프로그램 3개에 2년 동안 출연한 출연자의 성별, 연령, 직업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또 해당 프로그램이 2년 동안 다룬 토론 주제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교육, 기타 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제를 다시 세분화 하여 주제 선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한 논문들을 참고 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빈도 분석은 출연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나 토론 주제의 분야별 분포 같은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양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 했다. 교차 분석 방법은 각 방송사 사이의 다양성 정도 차이, 즉 시사

토론프로그램 사이의 다양성 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 단위는 프로그램 1회 방송분이다. 특정 출연자가 시사토론프로그램에 한번 출연 하면 1회 출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특정 출연자가 여러 프로그램에 한번씩 출연하면 매번 똑같은 주제로 출연했다라도 출연한 횟수만큼 출연한 것으로 계산하다. 주제에 대한 다양성 분석의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한 프로그램에서 한 번 주제로 다룰 때 마다 계산을 더했다.

### 3.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와 측정

주요 분석유목은 출연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주제의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나뉘보았다. 분석유목은 <표4-3>와 같다.

<표4-3> 분석 유목

분석유목	
출연자	①성별 ②연령 ③직업
주제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 ④환경 ⑤문화 ⑥교육 ⑦기타
주제특성	①갈등·논쟁적 ②비갈등·비논쟁적

출연자의 특성: 해당 방송사 각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로 출연자의 다양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로만 분석을 설정했다. 그 외 학력이라든지 소득 계층에 따른 분포로도 여론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분석 지표라 생각 했지만 방송 3사의 세 프로그램을 합쳐 분석 기간이 6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인 출연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는 역부족이라 활용하지 않았다.



출연자 직업별 분포의 경우 통계청의 표준 직업 분류와 선행연구(나미수, 2003; 홍성욱, 2006)에서 사용한 분석유목을 함께 참고했다. 이를 제주지역 방송 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한 달 간 방영분을 갖고 예비조사를 거쳐 새롭게 조합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된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직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직업유형>

- |             |  |
|-------------|--|
| ① 교수        | 대학·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②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   |
| ③ 경찰/법조계    | 경찰,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 ④ 의료계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
| ⑤ 정치인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인   |
| ⑥ 광역·기초단체장  | 도지사, 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 ⑦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
| ⑧ 언론인       | 신문사, 방송사의 기자 혹은 논설위원 등                                       |
| ⑨ 시민단체      | 사회 변화, 개선을 목표로 한 단체 구성원<br>(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여민회 등) |
| ⑩ 교육계       | 교육감, 교장, 초·중·고 교사  |
| ⑪ 일반사회단체    | 자생적 조직단체 구성원<br>(각종 기업 및 협동조합, 각종 연합회 및 협회, 노동조합 등)          |
| ⑫ 1차산업종사자   |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종사자  |
| ⑬ 2차산업종사자   |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종사자   |
| ⑭ 3차산업종사자   |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종사자                                       |
| ⑮ 문화·예술·종교계 | 작가, 화가, 음악가, 종교인 등   |
| ⑯ 공기업인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br>운영되는 기업의 근로자들                       |
| ⑰ 학생        | 대학생 등  |
| ⑱ 일반인       | 마을주민, 이주민여성 등  |

주제유형 및 특성: 토론 주제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유사 논문에 나와 있는 설정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인 5가지 분포에서 나아가 환경, 교육이라는 주제 분류를 추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주제 유형을 세분화 시켜 소분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는 실제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주제를 검색하여 분석유목을 설정한 것이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2010년 1월 1일에서 2012년 1월 31일까지의 그 기간 내 주요이슈 주제 20개를 간추려 현재 TV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주제 특성에 관해서는 주제의 성격이 갈등·논쟁적인지 비갈등·비논쟁적 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주제 분류 유목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교육, 기타의 7가지 주제 구분에 따른 속성과 소분류 주제 유형 분류, 주요 이슈 주제 분류, 주제 특성에 따른 유목을 <표4-4>와 같이 설정하였다.

세분화 주제 분류는 한국언론재단 발간 보고서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7’의 주제 분류 기준을 기초로 주제 분류를 참고 하여 제주지역 방송 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한 달 간 방영분을 갖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했다. 이처럼 분석 대상 프로그램 3개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른 주제가 분야 별로 어느 정도씩 분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사이의 다양성 정도 비교는 각 프로그램별로 출연자와 주제의 다양성 정도를 분석 한 뒤,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4-4> 주제 분류 유목

구분	분석유목 및 내용
주제유형 (대분류)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 ④환경 ⑤문화 ⑥교육 ⑦기타
주제유형 (소분류)	①공공정책 ②지방행정 ③지방선거 ④의회활동 ⑤1차산업 ⑥2차산업 ⑦3차산업 ⑧건강·복지 ⑨인물 ⑩환경오염·경관훼손 ⑪축제 ⑫교육 ⑬기타
제주지역 주요이슈 주제 (2010년~2012년 1월)	①세계7대자연경관선정(캠페인) ②해군기지 ③6.2지방선거 ④제주특별법 ⑤구제역 ⑥제주영어교육도시 ⑦신공항 및 해저터널 ⑧한미FTA ⑨혁신도시 ⑩영리병원 ⑪탐라대 부지 매각 ⑫트램(노면전차) ⑬우근민 인사정책 ⑭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⑮해상풍력 ⑯아파트 고분양가 ⑰경병사업 ⑱제주물가상승률 ⑲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비리 적발 ⑳우근민 최측근 감사위원장 내정 ㉑기타
주제특성	①갈등·논쟁적 ②비갈등·비논쟁적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대분류) 유형>

- ① 정치: 각종 공공정책 및 사업, 지방행정 및 의회활동, 지방선거관련 내용
- ② 경제: 1차산업(농·목·임·어업, 농·수·축산물 가격, 농산물 수출문제 및 유통문제 등)  
2차산업(제조업, 가스·전기업, 건설업 등)  
3차산업(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등)
- ③ 사회: 건강, 복지, 노인문제 및 일자리문제, 인물 등
- ④ 환경: 환경과 관련된 문제,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문제, 쓰레기 문제 등

- ⑤ 문화: 학술 행사 및 세미나, 문화예술 행사(축제, 공연, 음악회, 전시회), 종교 활동 등
- ⑥ 교육: 학교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 입시, 초·중·고·대학 교육정책  
학교폭력 및 교육환경문제 등
- ⑦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KBS제주방송총국 개국 60주년관련 내용)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소분류) 유형>**

- ① 공공정책: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 ② 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각종 행정 시책 및 사업
- ③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2010년 6.2지방선거 등)
- ④ 의회활동: 예산·조례·제정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⑤ 1차산업: 농·목·임·어업, 농·수·축산물 가격, 농산물 수출문제 및 유통문제 등
- ⑥ 2차산업: 제조업, 가스·전기업, 건설업 등
- ⑦ 3차산업: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등
- ⑧ 건강/복지: 도민의 건강 관련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
- ⑨ 인물: 인간 개인에 대한 소개, 미담, 유명인 업적 소개 등
- ⑩ 환경오염/경관훼손: 환경과 관련된 문제,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문제, 쓰레기 문제
- ⑪ 축제: 지역 축제, 탐라문화제 등
- ⑫ 교육: 입시, 초·중·고·대학 교육정책, 학교폭력 등 교육환경문제
- ⑬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KBS제주방송총국 개국 60주년 관련 내용)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특성 유형>**

- ① 갈등·논쟁적  
: 토론 주제에 대해 상호 대립되는 주장이나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토론 출연자가 2인, 3인, 4인, 5인 그 이상의 경우에도 대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출연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갈등·논쟁적으로 간주함)

② 비갈등·비논쟁적

: 상반되는 이해관계 및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 정책 관련 내용, 제주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

4. 신뢰도 검증

코더간 신뢰도 검증은 내용분석에 있어서의 일반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코더간 신뢰도란 동일한 내용을 한 사람이 반복해서 코딩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각각 코딩했을 때 그 결과를 일관성을 말한다(배현석, 2001). 내용분석을 위해 코딩을 할 때는 코더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도 검정을 통해 내용분석의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분석 유목간의 코딩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훈련된 대학원생 1명이 각각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MBC <시사 진단>의 출연자 유형과 주제유형, 주제특성에 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검토 방법으로 홀스티(Holsti)<sup>12)</sup>의 신뢰도 검증 공식을 이용하였다. 전체 244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약 10%인 30건의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시 항목별 재코딩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코더 간 평균 신뢰도는 다음 <표4-5>와 같다.

<표4-5> 신뢰도 검증

검증유목	코더 간 평균 신뢰도
출연자 유형	0.92
주제의 유형	0.88
주제특성(갈등, 비갈등)	0.90

위와 같이 분석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신뢰도를 측정한 변수들은 ① 출연자 유형(성별, 연령, 직업), ② 주제의 유형(대분류, 소분류, 분석기간 내 주요이슈), ③ 주제특성(갈등·논쟁적/비갈등·비논쟁적)이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후 코딩 데이터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빈도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12) 홀스티(Holsti)의 신뢰도 검증 공식은 신뢰도 계수 (C.R)=2M/N1+N2 이다. 이 때 M=두 명의 분석자간 일치한 코딩의 수, N1=분석자 1이 코딩한 수, N2=분석자 2가 코딩한 수이다(R.wimmer, and J. Dominick, 1994).

## V. 분석결과

분석 대상 프로그램인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제주MBC의 <시사진단>는 다수의 출연자와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가 보통 3명 이상이 출연한다.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는 분석기간인 2년 동안 261명이,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은 365명이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경우 312명이 출연한다.

방송 횟수를 보면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은 67회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은 93회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경우 84회다.

<표 5-1>과 같이 평균 출연자 수는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가 3.9명,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가 3.9명, 제주MBC의 <시사진단>가 3.7명이 된다. 평균적으로 볼 때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프로그램과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의 평균 출연자 수는 비슷했으며,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평균 출연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방송3사 각 프로그램의 출연자 수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5-1>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 회당 평균 출연자수

	총 방송횟수	총 출연자수	평균 출연자수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67회	261명	3.9명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93회	365명	3.9명
제주MBC <시사진단>	84회	312명	3.7명

\*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 제주지역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특성

먼저 토론 출연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870명(92.8%), 여자가 68명(7.2%)으로 남자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명(0.2%), 30대는 14명(1.5%), 40대는 227명(24.2%), 50대는 524명(55.9%), 60대는 135명(14.4%), 70대는 35명(3.7%), 80대는 1명(0.1%)로 분류되었다.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230명(24.5%)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이 161명(17.2%), 정치인이 149명(15.9%), 시민단체가 104명(11.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사회단체가 100명(10.7%), 전문가가 47명(5.0%), 교육계가 27명(2.9%), 3차산업종사자가 27명(2.8%), 공기업인이 21명(2.2%), 광역기초단체장이 15명(1.6%), 언론인이 13명(1.4%), 의료계가 10명(1.1%), 경찰/법조계가 9명(1.0%), 1차산업종사자 및 문화/예술/종교계, 그리고 일반인이 7명(0.7%), 2차산업종사자가 3명(0.3%), 학생이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5-2>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특성

항 목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자	870	92.8	
	여자	68	7.2	
연령	20대	2	0.2	
	30대	14	1.5	
	40대	227	24.2	
	50대	524	55.9	
	60대	135	14.4	
	70대	36 <sup>13)</sup>	3.8	
	직업분류	교수	230	24.5
전문가		47	5.0	
경찰/법조계		9	1.0	
의료계		10	1.1	
정치인		149	15.9	
광역기초단체장		15	1.6	
공무원		161	17.2	
언론인		13	1.4	
시민단체		104	11.1	
교육계		27	2.9	
일반사회단체		100	10.7	
1차산업종사자		7	0.7	
2차산업종사자		3	0.3	
3차산업종사자		26	2.8	
문화/예술/종교계		7	0.7	
공기업인		21	2.2	
학생		2	0.2	
일반인		7	0.7	
전체		938	100.0	

\*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3) 80대의 경우 1명(0.1%)으로 그 수치가 미미하여 70대 연령에 1명을 추가하였다.



## 2. 제주지역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다음으로 토론 주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대주제 별로 보면, 정치 분야가 109건(44.7%), 경제가 64건(26.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가 26건(10.7%), 환경과 교육이 각각 21건(8.6%), 문화가 2건(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화된 주제별로 보면, 3차산업이 47건(19.3%), 지방행정이 45건(18.4%), 공공정책이 44건(18.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복지가 23건(9.4%), 환경오염/경관훼손 및 교육이 21건(8.6%), 1차산업이 15건(6.1%), 지방선거가 14건(5.7%), 의회활동이 6건(2.5%), 인물이 3건(1.2%), 축제 및 2차산업이 2건(0.8%)이었다. 기타는 1건(0.4%)이었는데 KBS제주방송총국의 개국 60주년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제특성별로 보면, 갈등·논쟁적 주제가 46건(18.9%), 비갈등·비논쟁적 주제가 198건(81.1%)로 비갈등·비논쟁적 성격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3>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항 목	구분	표본수(건)	구성비율(%)
주제	정치	109	44.7
	경제	64	26.2
	사회	26	10.7
	환경	21	8.6
	문화	2	0.8
	교육	21	8.6
	기타	1	0.4
	세부 주제	공공정책	44
지방행정		45	18.4
지방선거		14	5.7
의회활동		6	2.5
1차산업		15	6.1
2차산업		2	0.8
3차산업		47	19.3
건강/복지		23	9.4
인물		3	1.2
환경오염/경관훼손		21	8.6
축제		2	0.8
교육		21	8.6
기타		1	0.4
주제 특성	갈등/논쟁적	46	18.9
	비갈등/비논쟁적	198	81.1
전체		244	100.0

\*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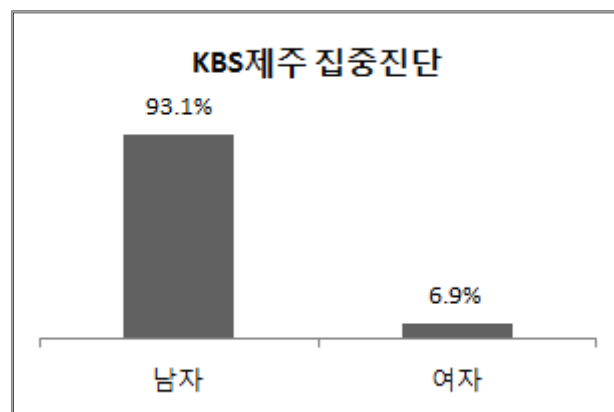
### 3.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은 ‘출연자’를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각 프로그램 출연자의 분포가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 정도가 분석 유목에 따라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출연자의 분포가 한 쪽으로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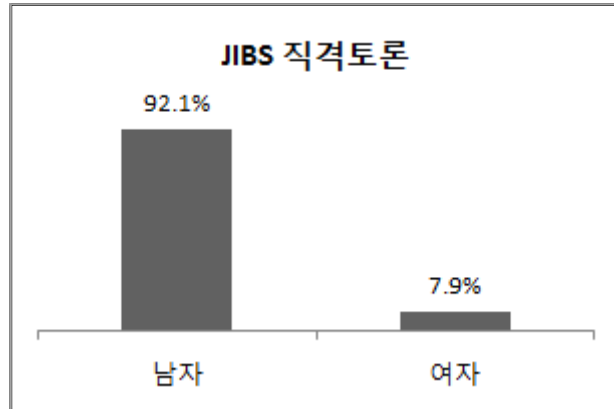
분석 대상 기간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에 출연한 토론자는 모두 261명이다. 이 가운데 243명(전체의 93.1%)은 <그림 5-1>와 같이 남성이었다. 여성 출연자는 나머지인 18명(전체 출연자의 6.9%)에 불과한 수치였다.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출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5-1>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출연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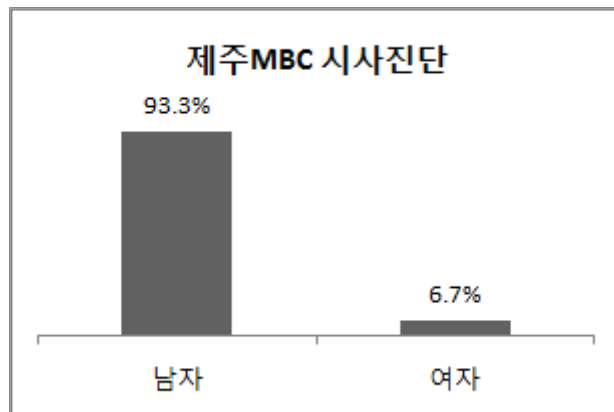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은 분석 대상 기간 2년 동안 출연자 토론자의 수가 365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출연자는 <그림 5-2>와 같이 모두 336명(전체 출

연자의 92.1%)이다. 여성 출연자는 29명(전체 출연자의 7.9%)으로 집계됐다. JIBS도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와 마찬가지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5-2>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의 성별 분포

제주MBC <시사진단>은 분석 대상 기간 2년 동안 출연한 출연자는 모두 312명이다. 이 중 남성 출연자는 <그림 5-3>와 같이 모두 291명(전체 출연자의 93.3%)이었다. 여성 출연자의 경우 21명(전체 출연자의 6.7%)으로 집계됐다. 제주MBC의 경우도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5-3>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의 성별 분포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의 남녀 비율이 인구의 성비와 똑같을 수는 없다. 출연자의 남녀 비율이 성비와 정확히 같으면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히 부합할지 몰라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방송은 아무래도 시의성이 있는 현안을 다루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성과 관련된 현안이 더 많이 발생하면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출연자 비율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홍성욱, 2006). 하지만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과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각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소홀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여성가족부 통계표)을 아래의 <표5-4>와 같이 62.7%(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무원 수(2013년 1월 31일 현재 기준)는 <표5-5>와 같이 총 공무원 수 4,263명 중 1,263명으로 총 비율 29.7%를 차지했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의 경우도 <표5-6>와 같이 전체 511명 중 56명으로 11%였다. 이렇듯 제주지역 방송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여성 출연자 비율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런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시사토론프로그램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출연자 선정에 있어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질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5-4> 시도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구 분	여성	남성	계	비 고
합 계 (%)	48.5	72.1	60.1	
서울특별시	51.3	72.0	61.3	
부산광역시	47.0	70.0	58.1	
대구광역시	50.8	69.5	59.9	
인천광역시	51.9	75.3	63.5	
광주광역시	46.3	69.0	57.3	
대전광역시	47.5	71.1	59.0	
울산광역시	41.4	76.7	59.3	
경 기 도	47.4	74.0	60.5	
강 원 도	45.0	65.9	55.2	
충청북도	45.8	67.9	56.7	
충청남도	47.5	72.4	59.9	
전라북도	43.9	70.0	56.5	
전라남도	52.6	72.7	62.3	
경상북도	49.6	72.4	60.8	
경상남도	45.4	72.4	58.7	
제주특별자치도	62.7	73.3	67.9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국 1위

<표5-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무원 수 ('13, 1월 31일 현재)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계	4,263	1,268	29.7%	1,885	404	21.4%	1,379	503	36.3%	998	365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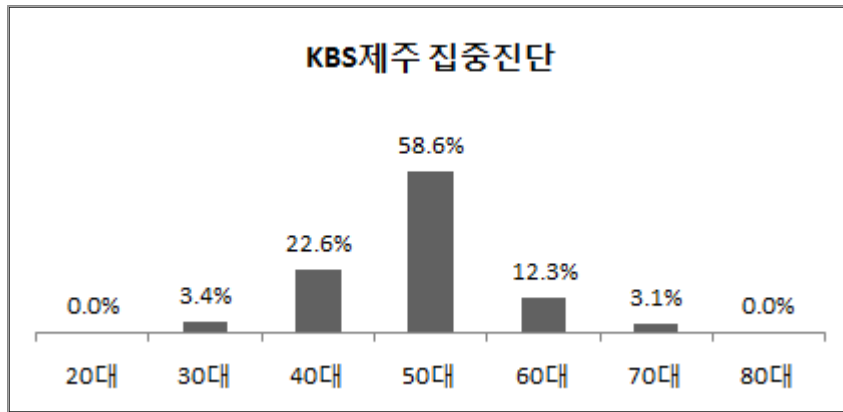
<표5-6> 제주특별자치도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수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총원	여성	비율
계	511	56	11.0%	390	39	10.0%	69	11	15.9%	52	6	11.5%

\* 특정직(소방직, 자치경찰) 제외, 별도정원 제외

다음으로, 출연자의 연령에 대해 분석이다. 현재 각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포 현황을 보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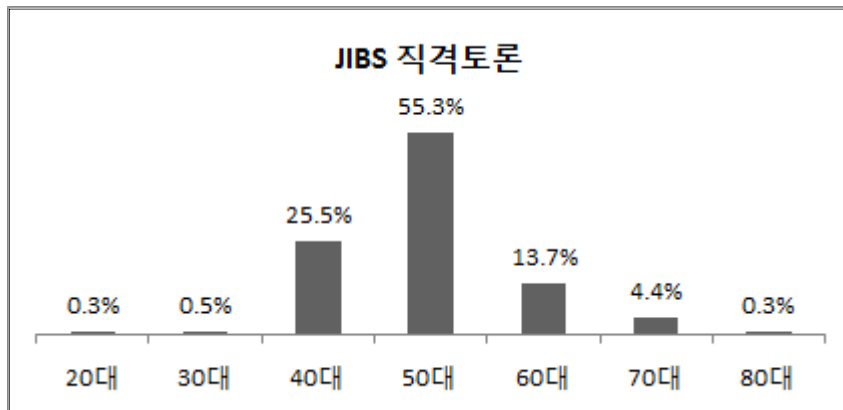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경우 <그림 5-4>와 같이 분석 대상 기간 2년 동안 출연한 261명 가운데 153명(전체 출연자의 58.6%)이 50대였고, 59명(전체 출연자의 22.6%)이 40대, 32명(전체 출연자의 12.3%)이 60대였다. 또한 30대 출연자가 9명(전체 출연자의 3.4%), 70대 출연자가 8명(전체 출연자의 3.1%)으로 집계 됐다. 그리고 20대와 80의 출연자의 경우는 단 한명도 출연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림5-4>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출연자 연령별 분포

JIBS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5>를 보면 50대 연령이 총 출연자 수 365명 가운데 202명(전체 출연자의 5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는 93명(전체 출연자의 25.5%)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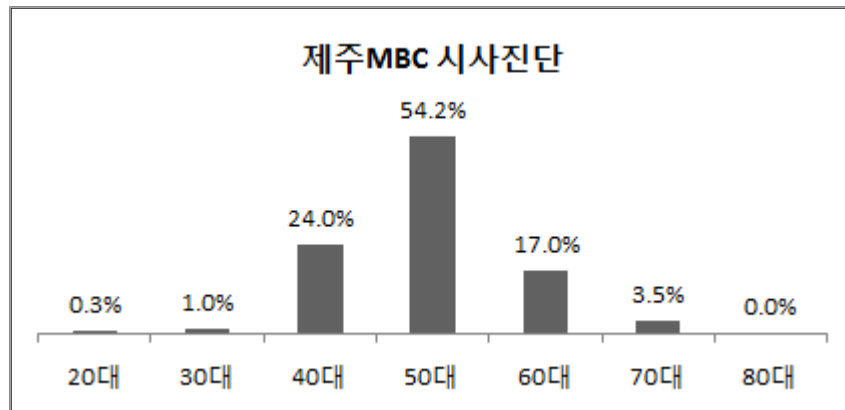
30대는 2명(전체 출연자의 0.5%)이며 60대는 50명(전체 출연자의 13.7%), 70대는 16명(전체 출연자의 4.4%)으로 나타났다. 20대와 80대는 1명으로 각각 0.3%를 차지하였다.



<그림5-5>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 연령별 분포

제주MBC <시사진단>의 출연자의 연령층을 보면 <그림 5-6>와 같이 마찬가지로 50대가 전체 출연자 312명 가운데 169명(전체 출연자의 54.2%)을 차지하였다.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의 연령층과 비슷한 모습으로 30대가

3명(전체 출연자의 1.0%)이며 40대는 75명(전체 출연자의 24.0%), 60대는 53명(전체 출연자의 17.0%), 70대는 11명(전체 출연자의 3.5%)으로 나타났다. 20대와 80대는 각각 0.3%, 0.0% 으로 집계됐다.



<그림 5-6>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 연령별 분포

제주지역 방송 3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의 연령층은 대개 40대와 50대였다. 이 연령층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각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계급적인 측면에서도 소속된 조직에서 관리자나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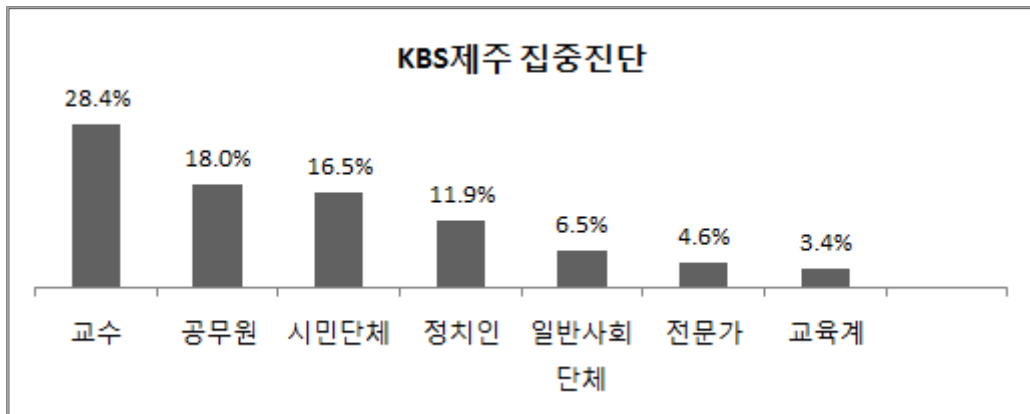
그러나 통상적인 국가적 의사 결정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투표권 행사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차별을 하지 않고 20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한 표씩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 역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라는 국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라면 투표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홍성욱, 2006).

마지막으로, 출연자의 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을 보면 <그림 5-7>과 같이 전체 출연자 261명 가운데 74명이 교수로 28.4%의 비율을 차지하여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47명으로 18.0% 비율로 두 번째로 많았고 시민단체가 43명으로 16.5%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정치인이 31명으로 11.9%의 비율을 보였고 일반사회단체가 17명으로 전체 출연자의 6.5%, 전문가가 12명으로 전체 출연자의 4.6%. 교육계가 9명으로 전체 출



연자의 3.4%였다. 그 밖의 경찰·법조계, 의료계, 광역기초단체장, 언론인, 1차~3차산업종사자, 문화·예술·종교계, 공기업인은 전체 출연자의 0.3%~1.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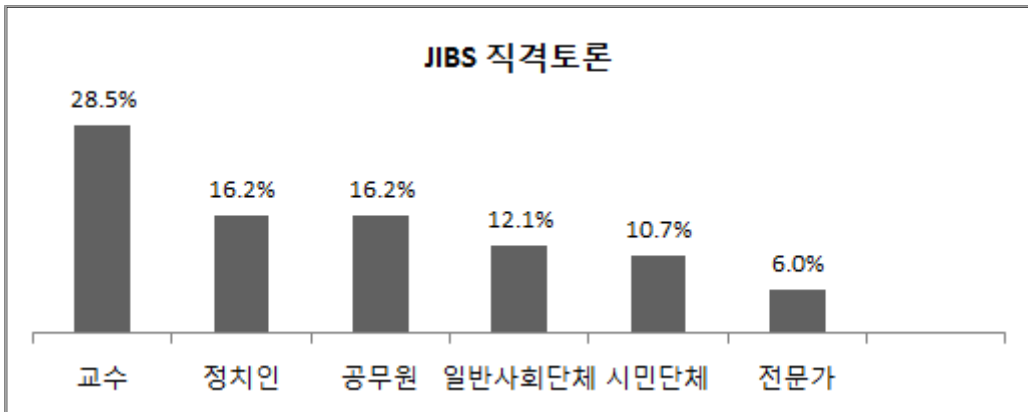
전체 출연자들 중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와 전문가 분야의 직업들이 33.0%를 차지하였다.



<그림5-7>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 출연자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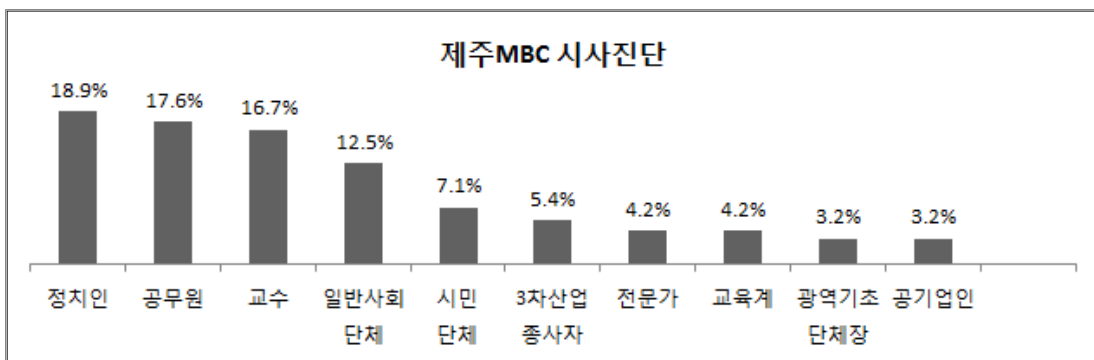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경우 출연자의 직업별 분포가 특정 직업군에 치우친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그림 5-8>과 같이 전체 출연자 전체 출연자 365명 가운데 104명(전체 출연자의 28.5%)이 교수 직업군 이었으며 정치인이 59명(전체 출연자의 16.2%), 공무원이 59명(전체 출연자의 1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일반사회단체가 44명(전체 출연자의 12.1%), 시민단체가 39명(전체 출연자의 10.7%), 전문가가 22명(전체 출연자의 6.0%)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경찰·법조계, 의료계, 광역기초단체장, 언론인, 교육계, 1차~3차산업종사자, 문화/예술/종교계, 공기업인, 학생, 일반인은 0.3%~1.9%의 수치로 미비하게 차지하였다.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경우도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전문가 직업군이 전체 출연자의 34.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수, 전문가와 공무원, 정치인의 직업을 갖고 있는 출연자가 전체 출연자의 51.5%를 보이면서 실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8>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출연자 직업 분포

마지막으로 제주MBC <시사진단>을 보면 아래의 <그림5-9>와 같이 정치인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출연자가 59명으로 전체출연자의 18.9%를 차지하였다. 공무원은 55명(전체 출연자의 17.6%), 교수는 52명(전체 출연자의 16.7%)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반사회단체가 39명(전체 출연자의 12.5%), 시민단체가 22명(전체 출연자의 7.1%), 3차산업종사자가 17명(전체 출연자의 5.4%), 전문가와 교육계가 각각 13명(전체 출연자의 4.2%), 광역기초단체장과 공기업인은 각각 10명(전체 출연자의 3.2%)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경찰·법조계, 의료계, 언론인, 1차~2차산업종사자, 문화·예술·종교계, 학생, 일반인은 0.3%~1.6%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5-9>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자 직업 분포

지금까지 각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자의 직업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유사 논문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직업은 ‘정

치인'이었다. 그에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2개의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교수'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출연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론의 주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라는 직업의 출연자를 토론의 출연자로 내세울 수 있다. 또한 관련 주제의 전공분야에 따라 특정 교수들이 잦은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중립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생각은 자칫 잘못 된 방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갖고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 방법들은 상반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로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기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과 조화가 이뤄졌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니라 리빙스턴(2001)에 따르면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출연자 선정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공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전문가라든지 정치가라는 특정 계층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경험, 정보, 엘리트 계층에 대한 비판 내용을 전달하는 공중의 대변자로도 기능해서 양측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결과를 바라본다면 교수와 공무원이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 출연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특정 계층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시청자와 상호 의사소통으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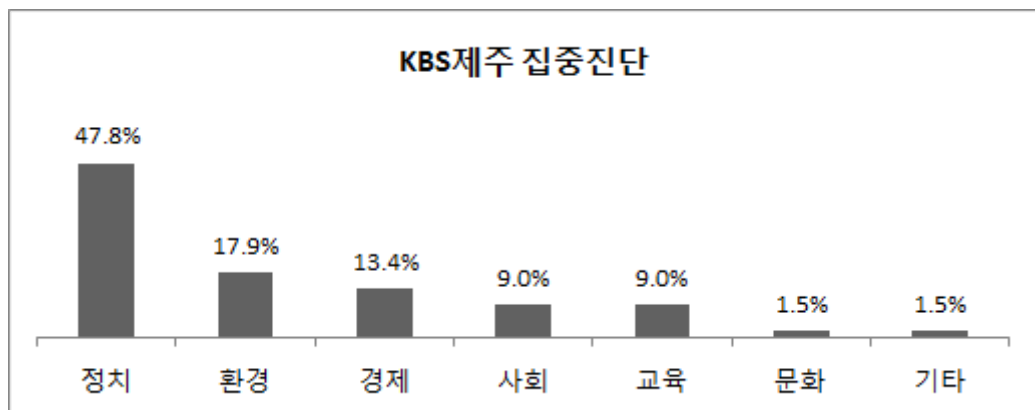
#### 4.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2. 제주지역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은 ‘토론 주제’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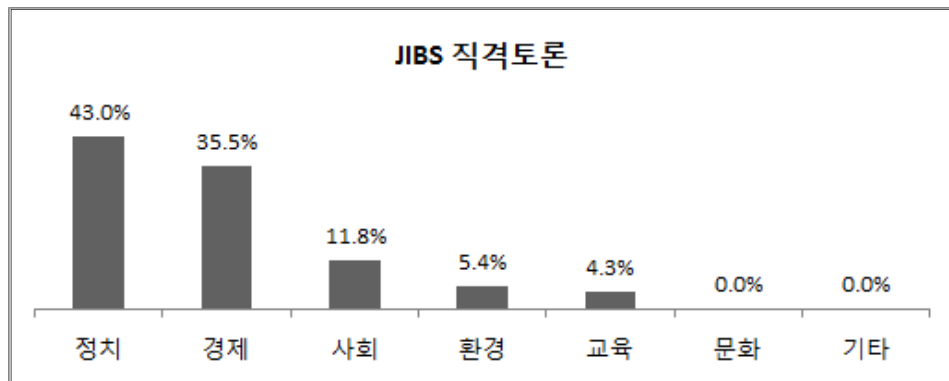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다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를 크게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교육, 기타로 우선 대분류로 나눠 빈도 분석을 실시했고 이어 다시 소분류로 공공정책, 지방행정, 지방선거, 의회활동,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건강·복지, 인물, 환경오염·경관훼손, 축제, 교육, 기타로 나눠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뤄진 토론 주제 67건 중 정치 분야에서 32건으로 47.8%의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9건으로 13.4%를 차지하였다. 사회 분야는 6건으로 9.0%를 차지해 비교적 낮은 비중을 두고 있다. 환경 분야는 12건으로 정치 분야 다음으로 높은 1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문화는 1건으로 1.5%, 교육은 6건으로 9.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KBS제주방송총국 개국 60주년)는 1건으로 1.5%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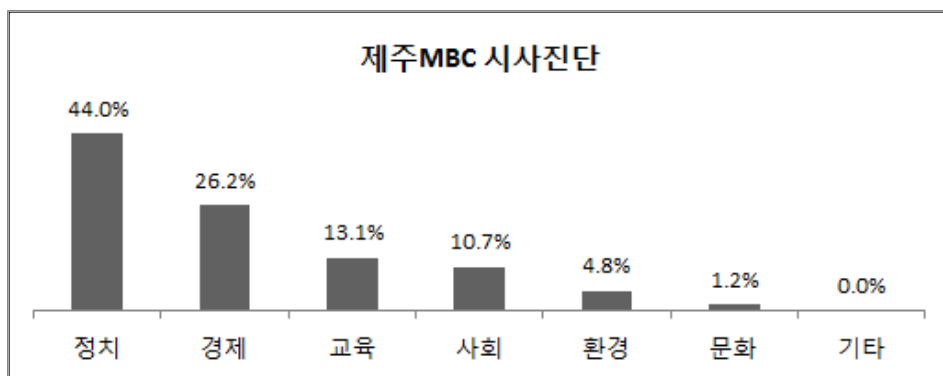
<그림5-10>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다음은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토론 주제가 총 93건으로 이 중 정치 분야가 40건인 4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33건으로 35.5%를 차지해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회 분야는 11건으로 11.8%를, 환경 분야에서는 5건으로 5.4%를 차지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4건인 4.3%로 다소 적게 차지하였으며 문화와 기타는 0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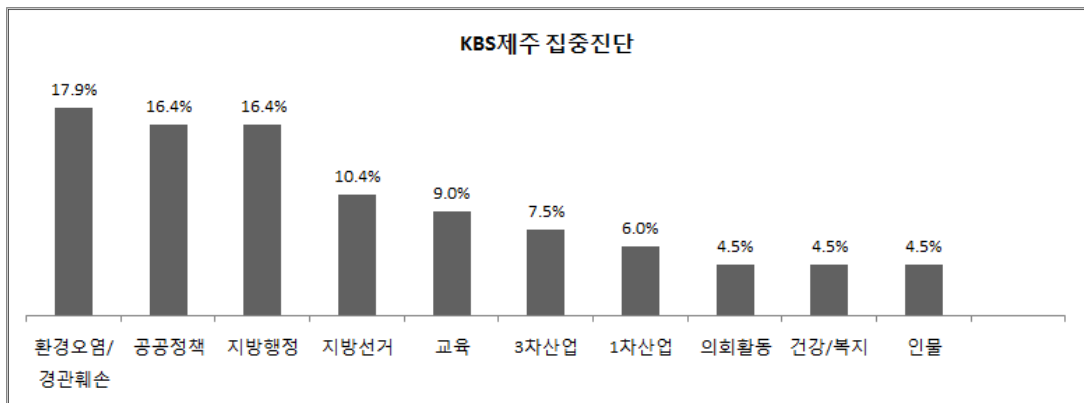
<그림5-11>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마지막으로 제주MBC의 <시사진단>을 보면 분석 기간 다뤄진 총 84건의 주제 중에 정치 분야가 37건으로 44.0%의 비중을 두었다. 경제 분야는 22건으로 26.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던 것은 교육 분야로 13.1%를 차지하였다. 사회 분야는 10.7%, 환경은 4.8%, 문화는 1.2%, 기타는 0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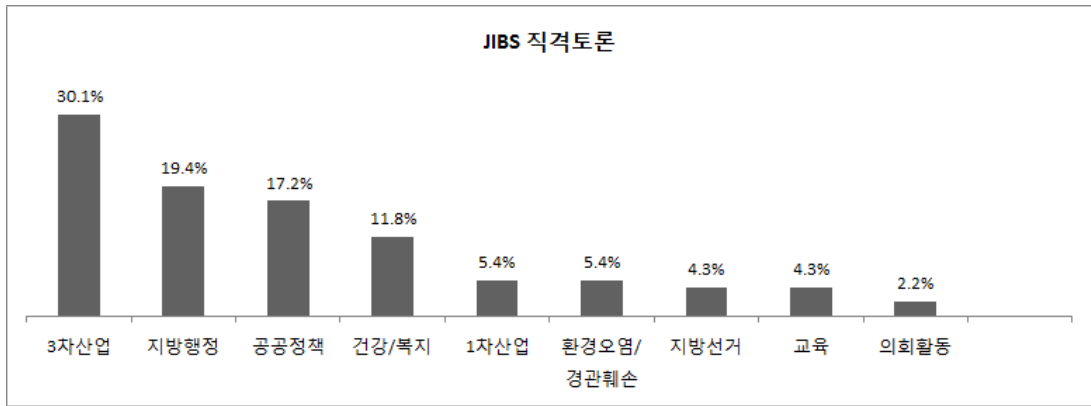
<그림5-12> 제주MBC <시사진단>의 토론 주제(대분류) 분포

다음은 소분류 주제 유형에 따른 각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 분포 결과이다.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는 환경오염·경관훼손이 1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공정책과 지방행정을 주제로 다루는 비율이 각각 16.4%로 높았다. 다음으로 지방선거가 10.4%, 교육이 9.0%, 3차산업이 7.5%, 1차산업이 6.0%, 의회활동, 건강·복지, 인물이 각각 4.5%였다. 그 밖에 축제, 기타, 2차산업은 1.5%에서 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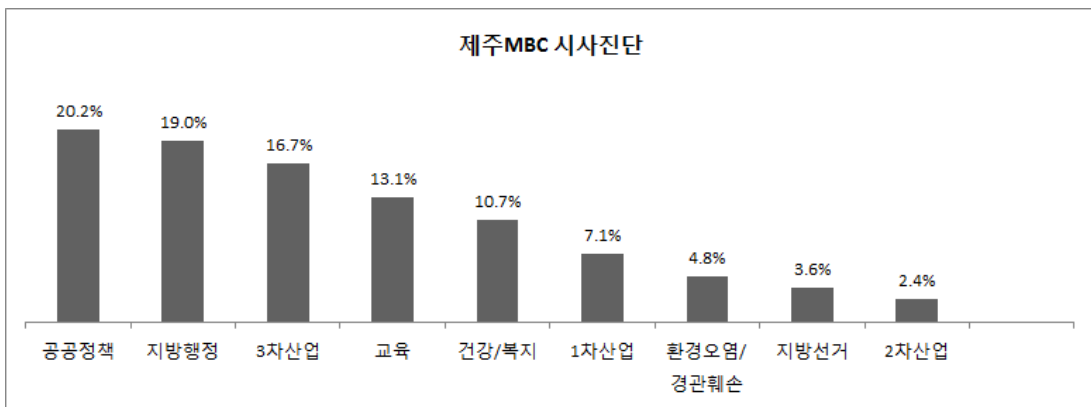
<그림5-13>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토론 주제(소분류) 분포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경우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와 달리 환경오염·경관훼손은 5.4%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30.1%로 3차산업이었다. 다음은 지방행정이 19.4%, 공공정책이 17.2%, 건강·복지가 11.8%였다. 다음으로 1차산업과 환경오염·경관훼손이 5.4%를 차지했고, 지방선거, 교육은 4.3%, 의회활동은 2.2%를 보였다. 그 밖의 2차산업, 인물, 축제, 기타에서는 0.0%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5-14>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토론 주제(소분류) 분포

제주MBC의 <시사진단>은 다음 그림 <5-15>와 같이 공공정책이 20.2%로 가장 높았고 지방행정이 19.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3차산업이 16.7%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교육이 13.1%, 건강·복지가 10.7%, 1차산업이 7.1%, 환경오염·경관훼손이 4.8%, 지방선거가 3.6%, 2차산업이 2.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의회활동과 축제는 1.2%, 인물과 기타는 0.0%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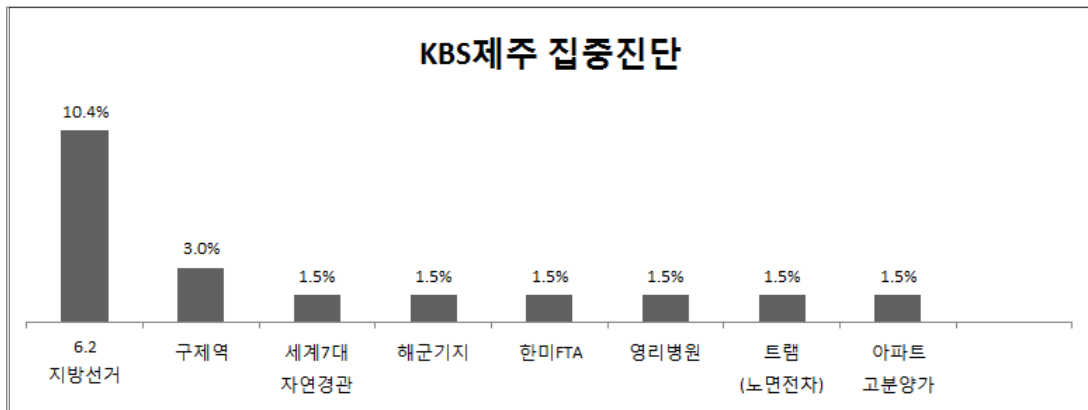
<그림5-15> 제주MBC <시사진단>의 토론 주제(소분류) 분포

주제 유형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 살펴 본 결과 세 프로그램 모두 주제가 정치, 경제로 너무 치중돼 있었다. 주제 유형을 세분화 하여 봤을 때에도 공공정책, 지방행정이라든지 3차산업인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JIBS의 경우 3차산업과 지방행정이 전체 주제 비율 가운데 49.5%를 차지하였다. 그래도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의 경우 환경오염·경관훼손에 대한 주제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다음은 각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분석기간 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 간 주요 이슈 현황을 얼마만큼 다뤘는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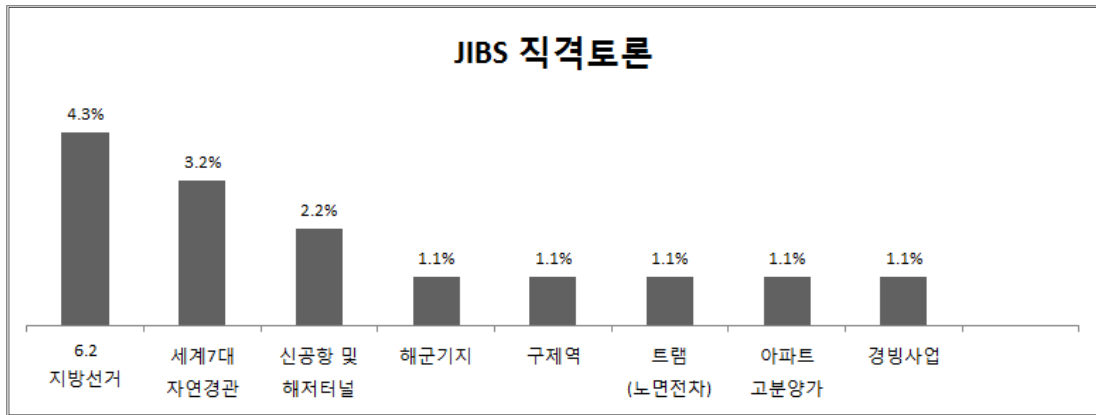
<그림5-16>를 보면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경우 6.2지방선거가 7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구제역 비상이 2건으로 3.0%, 세계7대자연경관, 해군기지, 한미FTA, 영리병원, 트램(노면전차), 아파트 고분양가가 각 1건으로 1.5%를 보였다. 이로써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주요 이슈 주제에 대한 전체 방영 주제 비율은 22.4%에 그쳤다.



<그림5-16>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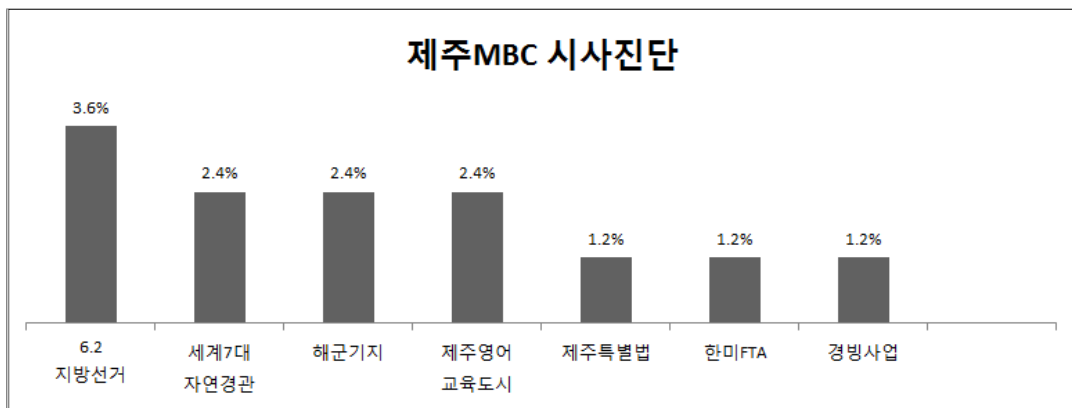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경우 <그림5-17>와 같이 6.2지방선거가 4건으로 4.3%를 차지했다. 세계7대자연경관이 3건으로 3.2%, 신공항 및 해저터널이 2건으로 2.2%, 해군기지, 구제역 비상, 트램(노면전차), 아파트 고분양가, 경빙사업이 1건으로 1.1%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주요 이슈 주제에 대한 전체 방영 주제 비율은 15.1%를 보였다.





<그림5-17>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제주MBC <시사진단>은 <그림5-18>와 같이 6.2지방선거는 3건으로 3.6%를 보였으며, 세계7대자연경관, 해군기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건으로 2.4%, 제주특별법, 한미FTA, 경병사업은 1건으로 1.2%를 보였다. 제주MBC <시사진단>의 주요 이슈 주제에 대한 전체 방영 주제 비율은 14.3%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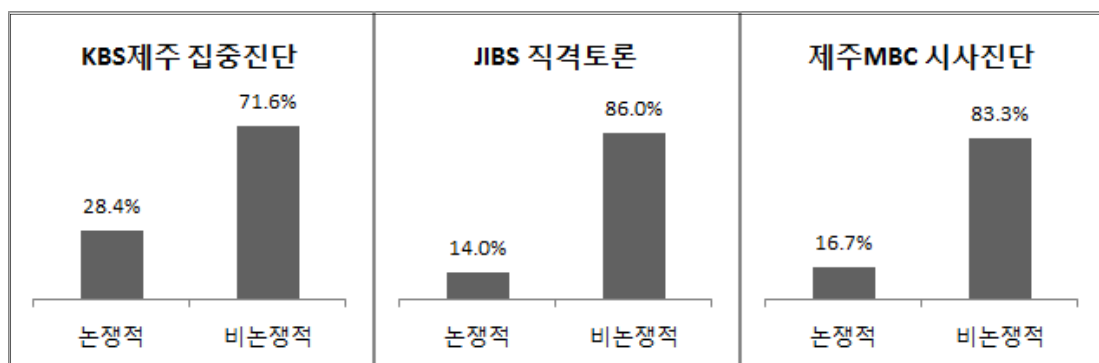
<그림5-18> 제주MBC <시사진단>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 분포

이와 같이 각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분석기간 내 주요 이슈 주제의 비율은 평균 16.8%에 그쳤다. 특히 6.2지방선거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논란에 대한 주제들이 다른 주제들보다 많이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각 방송사에서 분석

기간 내 신문에서 다뤄진 주제 외에 나름대로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실제 분석 기간 내 주요 문제로 대두됐던 주제를 골고루 다루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제의 경우 분석기간 내 주요이슈 중 세 방송 모두 가장 많이 보도 됐다는 점에서 한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절차인 만큼 중요하고 의미있게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제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주제가 다양성과 함께 갈등과 논쟁성이 있는 주제 성격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다음 <그림5-19>과 같이 현재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의 주제 성격을 보면 상당 수 이상이 비갈등·비논쟁적 이었다.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과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경우 비갈등·비논쟁적인 비율이 80%가 넘어 실질적으로 단순 현안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에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겠다.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의 경우 71.6%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비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논쟁 지향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토론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토론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론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논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찾기에 급급한 토론을 통해서서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그림5-19> 각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특성

## 5.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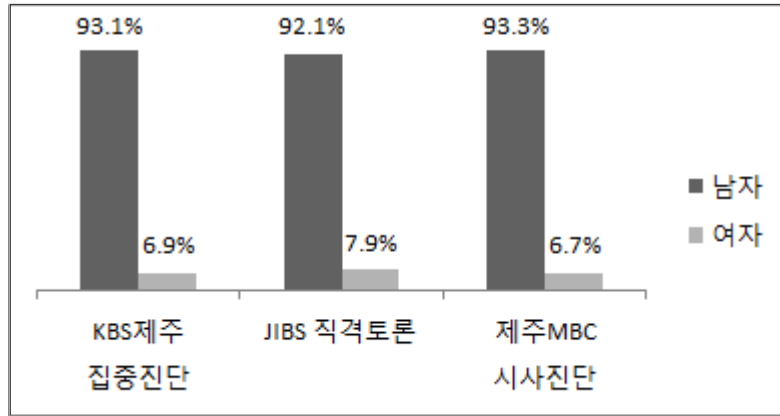
연구문제 3.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따라 토론주제와 출연자 선정에 차이가 있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가?

### 1) 방송사별 출연자의 성별 차이

먼저, 방송사별로 출연자의 성별에 대해 교차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5-7>과 같다. 먼저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은 남자가 93.1%, 여자가 6.9%로 나타났으며,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은 남자가 92.1%, 여자가 7.9%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MBC의 <시사진단>은 남자가 93.3%, 여자가 6.7%로 나타나, 세 개 방송사 모두 남자 출연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BS제주방송총국과 제주MBC의 비슷한 비율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민영방송인 JIBS의 남성 출연자의 편중이 두 방송사 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덜했지만,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

<표5-7> 방송사별 출연자 성별 분포 현황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남자	N	243	336	291	0.436 (0.804)
	(%)	(93.1)	(92.1)	(93.3)	
여자	N	18	29	21	
	(%)	(6.9)	(7.9)	(6.7)	
전체	N	261	365	312	
	(%)	(100.0)	(100.0)	(100.0)	



<그림5-20> 방송사별 출연자들의 성별 분포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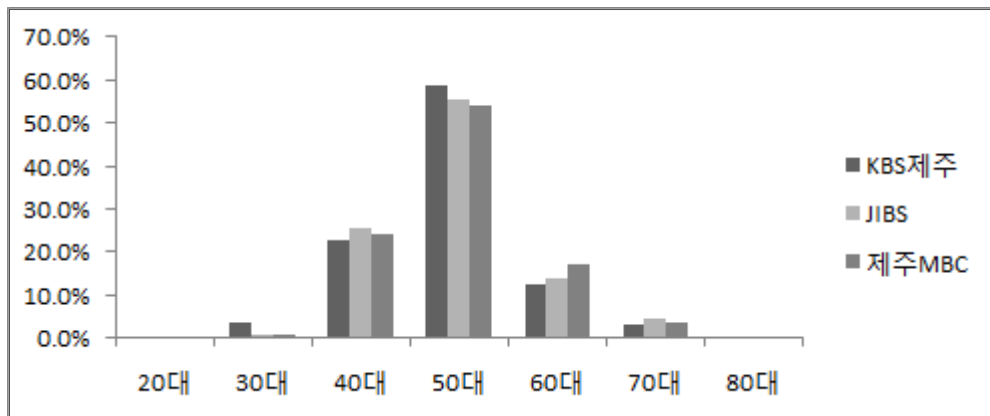
## 2) 방송사별 출연자의 연령 차이

다음으로, 방송사별 출연자의 연령에 대한 차이이다.

<표5-8> 방송사별 출연자 연령대 분포 현황(단위: 건수, (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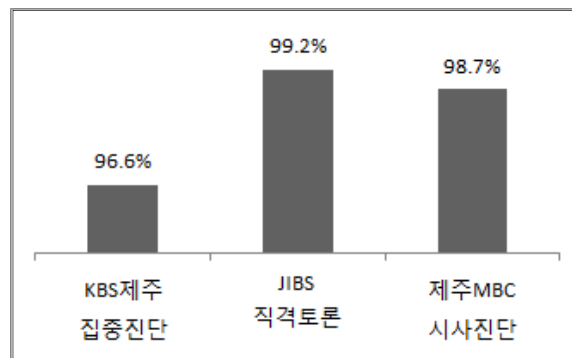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20대	N	0	1	1	16.044 (0.189)
	(%)	(0.0)	(0.3)	(0.3)	
30대	N	9	2	3	
	(%)	(3.4)	(0.5)	(1.0)	
40대	N	59	93	75	
	(%)	(22.6)	(25.5)	(24.0)	
50대	N	153	202	169	
	(%)	(58.6)	(55.3)	(54.2)	
60대	N	32	50	53	
	(%)	(12.3)	(13.7)	(17.0)	
70대	N	8	16	11	
	(%)	(3.1)	(4.4)	(3.5)	
80대	N	0	1	0	
	(%)	(0.0)	(0.3)	(0.0)	
전체	N	261	365	312	938
	(%)	(100.0)	(100.0)	(100.0)	(100.0)

<표5-8>을 보면 전반적으로 20대와 80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30대는 KBS제주방송총국이 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제주MBC가 1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5-21>과 같이 40~50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은 3개 방송사가 비슷한 성향을 보였고 각 방송사의 출연자 분포를 보면 그 차이가 서로 크지 않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방송사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그림5-21> 방송사별 출연자들의 연령대 분포 비교

다시 세부적으로 방송사 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출연자 비율을 살펴보면 민영방송인 JIBS가 99.2%로 가장 높다. 실질적으로 20대, 30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세 방송사 모두 95%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KBS제주방송총국이 9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5-22> 방송사별 40대 이상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 3) 방송사별 출연자의 직업 차이

마지막으로, 방송사별로 출연자의 직업차이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5-9> 방송사별 출연자 직업 분포 현황(단위: 건수, ( )안은 %)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교수	N 74 (%) (28.4)	104 (28.5)	52 (16.7)	230 (24.5)	81.337 (0.000)
전문가	N 12 (%) (4.6)	22 (6.0)	13 (4.2)	47 (5.0)	
경찰/법조계	N 3 (%) (1.1)	1 (0.3)	5 (1.6)	9 (1.0)	
의료계	N 4 (%) (1.5)	4 (1.1)	2 (0.6)	10 (1.1)	
정치인	N 31 (%) (11.9)	59 (16.2)	59 (18.9)	149 (15.9)	
광역기초 단체장	N 1 (%) (0.4)	4 (1.1)	10 (3.2)	15 (1.6)	
공무원	N 47 (%) (18.0)	59 (16.2)	55 (17.6)	161 (17.2)	
언론인	N 5 (%) (1.9)	3 (0.8)	5 (1.6)	13 (1.4)	
시민단체	N 43 (%) (16.5)	39 (10.7)	22 (7.1)	104 (11.1)	
교육계	N 9 (%) (3.4)	5 (1.4)	13 (4.2)	27 (2.9)	
일반사회단체	N 17 (%) (6.5)	44 (12.1)	39 (12.5)	100 (10.7)	
1차산업종사자	N 3 (%) (1.1)	1 (0.3)	3 (1.0)	7 (0.7)	
2차산업종사자	N 1 (%) (0.4)	1 (0.3)	1 (0.3)	3 (0.3)	
3차산업종사자	N 2 (%) (0.8)	7 (1.9)	17 (5.4)	26 (2.8)	
문화/예술/ 종교계	N 5 (%) (1.9)	1 (0.3)	1 (0.3)	7 (0.7)	
공기업인	N 4 (%) (1.5)	7 (1.9)	10 (3.2)	21 (2.2)	
학생	N 0 (%) (0.0)	1 (0.3)	1 (0.3)	2 (0.2)	
일반인	N 0 (%) (0.0)	3 (0.8)	4 (1.3)	7 (0.7)	
전체	N 261 (%) (100.0)	365 (100.0)	312 (100.0)	938 (100.0)	

전반적으로 교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KBS제주방송총국은 교수가 28.4%, JIBS의 경우는 교수가 28.5%로 두 방송사가 거의 비슷한 반면, 제주MBC는 교수가 1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JIBS가 6.0%로 나타났으나, KBS제주방송총국은 4.6%, 제주MBC는 4.2%에 불과했다.

정치인의 경우 제주MBC는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JIBS는 16.2%, KBS제주방송총국은 1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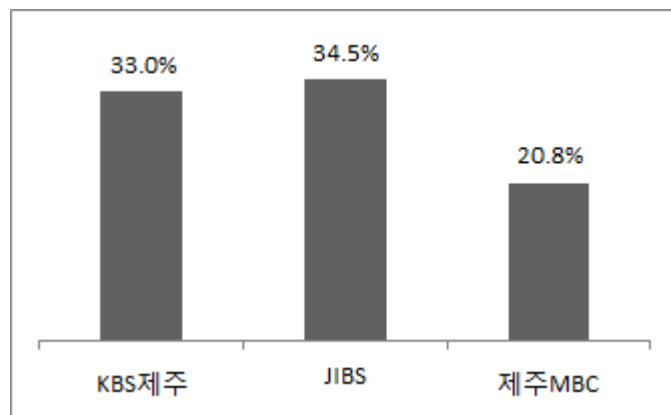
광역기초단체장은 KBS제주방송총국(0.4%)과 JIBS(1.1%)가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제주MBC가 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민단체의 경우는 KBS제주방송총국이 16.5%로 JIBS(10.7%), 제주MBC(7.1%)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교육계는 제주MBC가 4.2%, KBS제주방송총국은 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JIBS는 1.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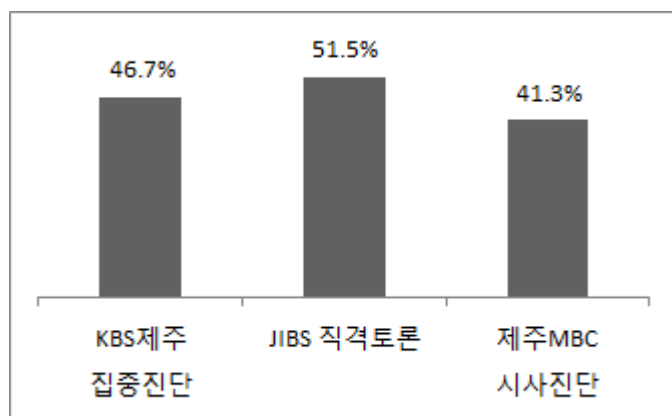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일반사회단체는 KBS제주방송총국이 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JIBS가 12.1%, 제주MBC가 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방송사별로 직업 분포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각 방송사별로 교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와 같이 각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출연자의 비율을 비교해봤다. KBS제주방송총국(33.0%)과 JIBS(34.5%)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제주MBC는 상대적으로 적은 20.8%를 차지하였다.



<그림5-23> 방송사별 교수·전문가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다음으로 각 방송사별로 교수와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의 직업군의 출연자 비율을 비교해봤다. 민영방송인 JIBS의 경우 교수와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의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제주MBC가 4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KBS제주방송총국은 46.7%의 비율이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더욱 간연하는 바가 큰 교수, 전문가, 공무원, 정치인 계층의 주장은 민영 방송이 더욱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5-24> 방송사별 교수·전문가·공무원·정치인 출연자 분포 비율 비교

#### 4) 방송사별 주제의 차이

다음으로 방송사별로 주제(대분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로, 정치 분야에서 KBS제주방송총국은 47.8%, 제주MBC는 44.0%, JIBS는 43.0%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JIBS가 35.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제주MBC는 26.2%, KBS제주방송총국은 13.4% 비중을 두었다.

사회 분야는 JIBS가 11.8%, 제주MBC가 10.7%, KBS제주방송총국이 9.0% 순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환경 분야는 KBS제주방송총국이 1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JIBS가 5.4%, 제주MBC가 4.8%의 비중을 보였다.

문화는 KBS제주방송총국이 1.5%, 제주MBC가 1.2%인 반면, JIBS는 한 번도



방영되지 않았다.

교육은 제주MBC가 13.1%, KBS제주방송총국이 9.0%인 반면, JIBS는 4.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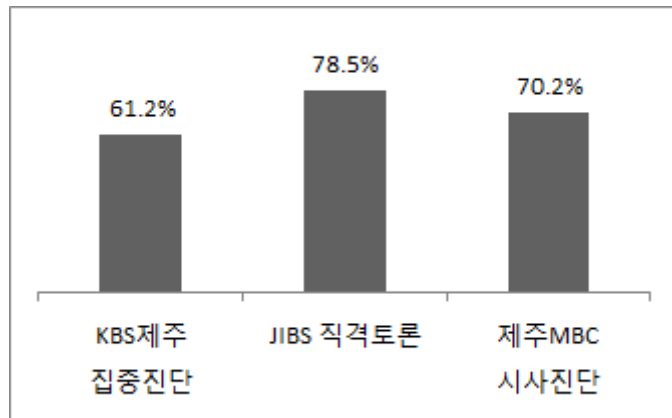
기타는 KBS제주방송총국이 1건으로 1.3%, JIBS와 제주MBC가 0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별로 주제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방송사별로 대분류 주제 분포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p < .05$ ).

<표5-10> 방송사별 주제(대분류) 분포 현황(단위: 건수, ( )안은 %)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정치	N	32	40	37	109	24.932 (0.015)
	(%)	(47.8)	(43.0)	(44.0)	(44.7)	
경제	N	9	33	22	64	
	(%)	(13.4)	(35.5)	(26.2)	(26.2)	
사회	N	6	11	9	26	
	(%)	(9.0)	(11.8)	(10.7)	(10.7)	
환경	N	12	5	4	21	
	(%)	(17.9)	(5.4)	(4.8)	(8.6)	
문화	N	1	0	1	2	
	(%)	(1.5)	(0.0)	(1.2)	(0.8)	
교육	N	6	4	11	21	
	(%)	(9.0)	(4.3)	(13.1)	(8.6)	
기타	N	1	0	0	1	
	(%)	(1.5)	(0.0)	(0.0)	(0.4)	
전체	N	67	93	84	244	
	(%)	(100.0)	(100.0)	(100.0)	(100.0)	

교수, 전문가, 공무원, 정치인의 출연자가 가장 많았던 민영 방송사인 JIBS의 경우 토론 주제의 정치, 경제 분야 편중 현상도 78.5%로 가장 심했다. 아무래도 주제와 출연자의 선정이 서로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은 제주MBC는 70.2%의 비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것은 KBS제주방송총국으로 61.2%였다.



<그림5-25> 방송사별 정치·경제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5) 방송사별 세부 주제의 차이

다음으로 방송사별로 세부 주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공공정책 주제는 제주MBC가 17건으로 20.2%의 비중을 둔 반면, JIBS는 16건인 17.2%, KBS제주방송총국이 11건인 16.4%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은 JIBS가 19.4%, 제주MBC가 19.0%, KBS제주방송총국이 16.4%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지방선거는 KBS제주방송총국은 10.4%의 비중을 둔 반면, JIBS는 4.3%, 제주MBC가 3.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의회활동은 KBS제주방송총국은 4.5%로 나타난 반면, JIBS는 2.2%, 제주MBC는 1.2%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은 제주MBC가 7.1%, KBS제주방송총국은 6.0%, JIBS가 5.4%로 나타났다, 2차산업은 제주MBC만 2.4%로 나타났으며, 3차산업은 JIBS가 30.1%, 제주MBC가 16.7%, KBS제주방송총국이 7.5%로 방송사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복지는 JIBS가 11.8%, 제주MBC가 10.7% 비교적 높은 반면, KBS제주방송총국이 4.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인물은 KBS제주방송총국만 4.5%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경관훼손도 KBS제주방송총국이 17.9%로 JIBS(5.4%)와 제주MBC(4.8%)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교육은 제주MBC가 1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KBS제주방송총국이 9.0%, JIBS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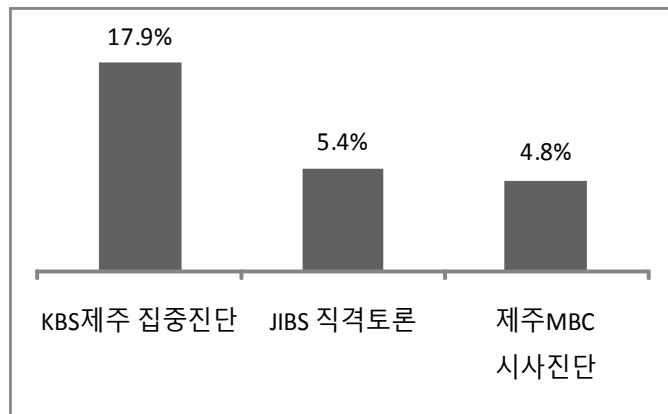
그 외 축제, 기타 관련해서는 3개 방송사 모두 0~1건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사별로 세부주제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방송사별 세부주제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 < .01$ ).

<표5-11> 방송사별 주제(소분류) 분포 현황(단위: 건수, ( )안은 %)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공공정책	N	11	16	17	48.314 (0.002)
	(%)	(16.4)	(17.2)	(20.2)	
지방행정	N	11	18	16	
	(%)	(16.4)	(19.4)	(19)	
지방선거	N	7	4	3	
	(%)	(10.4)	(4.3)	(3.6)	
의회활동	N	3	2	1	
	(%)	(4.5)	(2.2)	(1.2)	
1차산업	N	4	5	6	
	(%)	(6)	(5.4)	(7.1)	
2차산업	N	0	0	2	
	(%)	(0)	(0)	(2.4)	
3차산업	N	5	28	14	
	(%)	(7.5)	(30.1)	(16.7)	
건강/복지	N	3	11	9	
	(%)	(4.5)	(11.8)	(10.7)	
인물	N	3	0	0	
	(%)	(4.5)	(0)	(0)	
환경오염/ 경관훼손	N	12	5	4	
	(%)	(17.9)	(5.4)	(4.8)	
축제	N	1	0	1	
	(%)	(1.5)	(0)	(1.2)	
교육	N	6	4	11	
	(%)	(9)	(4.3)	(13.1)	
기타	N	1	0	0	
	(%)	(1.5)	(0)	(0)	
전체	N	67	93	84	
	(%)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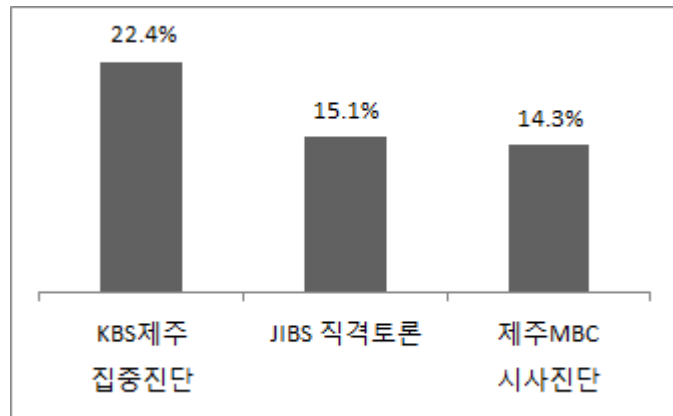
앞서 KBS제주방송총국은 JIBS와 제주MBC의 비해 정치, 경제 분야의 주제 비율이 낮았었다. 이것은 환경오염·경관훼손 주제가 1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탐동 매립’, ‘경관 관리’, ‘야생멧돼지 잡은 출몰’, ‘제주올레 명암’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의 요소를 보면 그에 따른 환경적 중요성과의 연관성을 배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 선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5-26> 방송사별 환경오염·경관훼손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6) 방송사별 분석기간 내 주요이슈 주제 차이

각 방송사별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분석기간 동안 주요 이슈로 대두 됐던 주제들을 얼마만큼 다뤘는지를 살펴 본 결과, <그림5-27>와 같이 KBS제주방송총국 <집중진단 제주>는 전체 방영 주제 비율 22.4%, 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은 15.1%, 제주MBC <시사진단>은 14.3%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의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던 주제들을 가장 많은 다룬 프로그램은 제주MBC <시사진단>이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세 프로그램 간에 큰 차이점은 없었다.



<그림5-27> 방송사별 주요 이슈 주제 분포 비율 비교

## 7) 방송사별 주제특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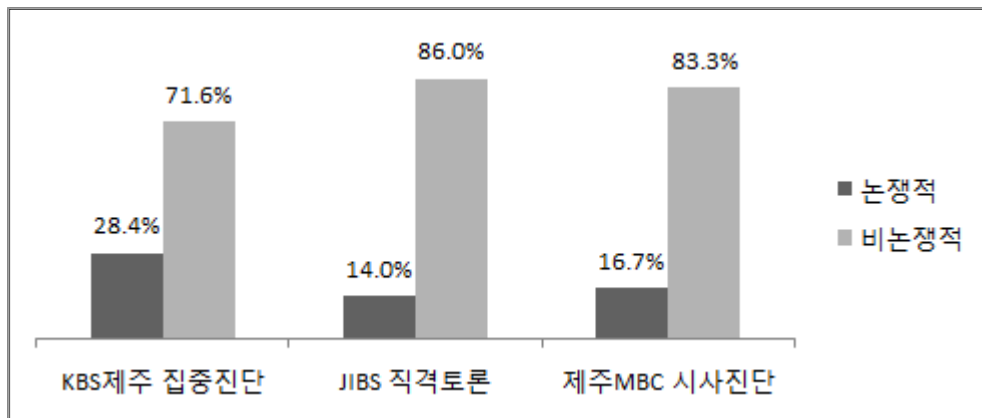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방송사별로 주제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에서는 갈등·논쟁적인 주제의 비중이 28.4%로 나타나 비교적 많이 다루었으며, JIBS의 <직격토론>은 14.0%, 제주MBC의 <시사진단>은 16.7%로 갈등·논쟁적 주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었다. 전체비율로 봤을 때도 갈등·논쟁적이 18.9%였고, 비갈등·비논쟁적이 83.3%였다.

즉,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 안에서 실상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주제와 형식 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5-12> 방송사별 주제특성(단위: 건수, ( )안은 %)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갈등/ 논쟁적	N	19	13	14	46	5.664 (0.059)
	(%)	(28.4)	(14.0)	(16.7)	(18.9)	
비갈등/ 비논쟁적	N	48	80	70	198	
	(%)	(71.6)	(86.0)	(83.3)	(81.1)	
전체	N	67	93	84	244	
	(%)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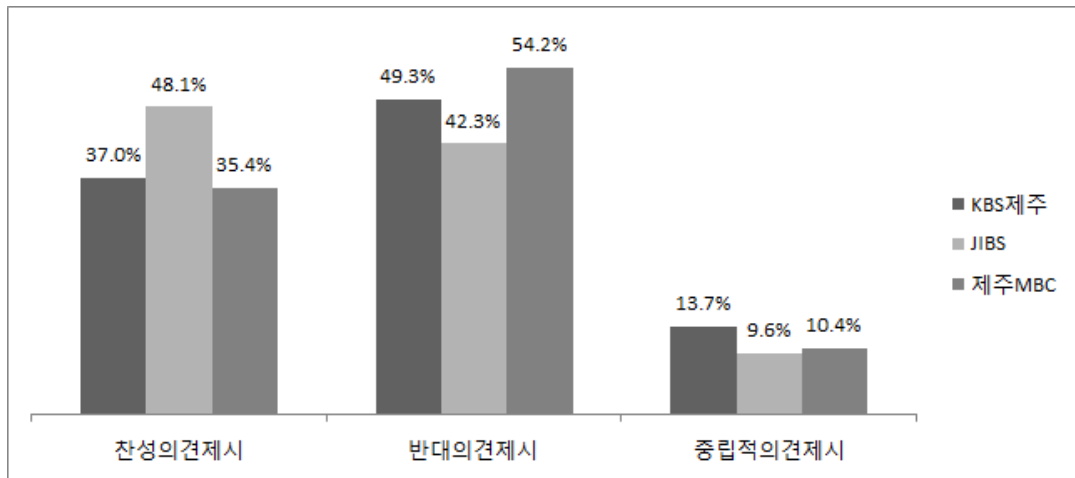


<그림5-29> 방송사별 주제특성 비교

갈등·논쟁적인 경우 출연자들의 태도 양상을 보면 전체 173명 중 주제에 대해 찬성 의견제시가 69명으로 39.9%, 반대 의견제시가 84명으로 48.6%, 중립적 입장이 11.6%였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출연자들이 많았으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출연자 외에도 중립적 태도를 보인 출연자도 다소 있었다.

<표5-13> 방송사별 출연자 태도 (단위: 건수, ( )안은 %)

구분		방영채널			전체	카이제곱 (p값)
		KBS제주 집중진단	JIBS 직격토론	제주MBC 시사진단		
찬성 의견제시	N	27	25	17	69	2.520 (0.641)
	(%)	(37.0)	(48.1)	(35.4)	(39.9)	
반대 의견제시	N	36	22	26	84	
	(%)	(49.3)	(42.3)	(54.2)	(48.6)	
중립적 의견제시	N	10	5	5	20	
	(%)	(13.7)	(9.6)	(10.4)	(11.6)	
전체	N	73	52	48	173	
	(%)	(100.0)	(100.0)	(100.0)	(100.0)	



<그림5-30> 방송사별 출연자 태도 비교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논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와 함께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합의를 창출해내는 조정수단으로서 하나의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이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게 판단되기 보다는 공중을 통해 협의적 판단을 이뤄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외받는 구성원들이 없어야 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제주지역의 TV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주제와 출연자를 선정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총 2년 간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 JIBS의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제주MBC의 <시사진단>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출연자 선정에 있어 남, 녀 성비를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세 프로그램 모두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했고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현재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비율을 보더라도 그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자의 연령을 봤을 때도 세 프로그램 모두 40대, 50대, 60대가 대다수로 20대와 30대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현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자리를 잡은 연령층은 위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20~30대의 젊은 층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는 그들이 목소리를 배제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

출연자의 직업군을 보더라도 교수와 공무원, 정치인 계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나마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의 경우 세 번째로 시민단체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출연자가 가장 많았고 JIBS의 <직격토론>과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경우 일반사회단체 직업군이 네 번째로 많았다. 또한 제주MBC의 <시사진단>의 경우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와 JIBS의 <제주아젠

다 직격토론>이 전체 출연자의 2.0%를 차지하는 직업군이 각각 6개, 7개 분야인 반면에 10개의 분야의 직업군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율은 미비한 수치이므로 제주지역 방송사 모두 여러 직업군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토론프로그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론자의 구성에서의 변화가 어렵다면 포맷개발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시청자의 참여를 높인다든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의견수렴의 폭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주제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세 프로그램 모두 주제가 정치, 경제로 너무 치중돼 있었다. 주제 유형을 세분화 하여 봤을 때에도 공공정책이라든지 지방행정, 3차산업인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도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의 경우 환경오염·경관훼손에 대한 주제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이처럼 토론프로그램의 의제설정의 폭이 협소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시청자들로부터 토론의제를 추천 받거나 실생활의 밀접한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 간 주요 이슈 주제들을 살펴본 결과, KBS제주방송총국의 <집중진단 제주>가 22.4%였고 JIBS의 <직격토론 아젠다>, 제주MBC <시사진단>은 각각 15.1%, 14.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겠는데 첫째, 현재 제주지역 토론프로그램들이 분석 기간 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루는데 소홀 했다는 것과 둘째, 방송사 자체적으로 다양한 토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토론 주제에서 분석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제주 물가상승률 전국1위라든지 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비상 등 서민 경제에 대한 주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민생 문제에 대한 주제 역시 적었다.

다음으로 주제 특성을 보면 갈등·논쟁적인 성격의 주제 보다는 비갈등·비논쟁적인 주제가 훨씬 많았다. 즉, 대부분 단순한 정책적인 현안에 대한 기술적인 담론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토론의 진행에서 생산적인 토론 결과를 창출해 나가지 못하고 정책 홍보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토론프로그램의 실제 의의와 역할

에 어긋나게 된다. 제대로 된 여론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주제 선정과 진행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는 토론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의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 선정과 주제를 다루는 방향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곧 기회의 균등을 생각하는데 소홀함이 있고 각 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사회적 공론장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논문인 나미수(2003)와 홍성욱(2005)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나미수의 연구에서는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에 있어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 토론출연자의 경우도 남성 집단, 지식인 집단 등의 특징을 가진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 토론구조와 여론형성 유형 결과를 보면 쌍방향적 논쟁구조보다는 일방적 구조가 더 많았고 합의도출형 보다는 의견대립형이 상대적으로 높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홍성욱의 연구에서는 출연자의 성비가 마찬가지로 여성이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출연자가 거의 모두 기성세대였다. 또 직업군은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 모두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이렇듯 전국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을 다룬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 연구에서는 출연자의 직업군에서 교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 대다수 연구에서 대분류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로만 분석을 한 것에 반해 소분류 주제로 다시 나뉘어 살펴 본 결과 공공정책, 지방행정, 3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론 주제 선정과 토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은 방송사 편성권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자율인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는 자율을 추구하되 프로그램 제작 자체를 자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주 도민들의 의견과 소통의 장으로서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출연자와 주제선정에서 벗어나 성숙된 토론 문화를 만들고 다양성을 갖춘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이 시사토론프로그램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 3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출연자와 토론 주제의 다양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유사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잡아 실시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년으로 잡아 기존의 유사 연구보다는 본격적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음을 자인하며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와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한 계층과 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용이 부족하다. 방송사의 제작여건과 섭외의 어려움 등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원인이 되는 이유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둘째,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와 주제 선정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분석 유목의 객관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유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세분화 시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 맞는 유목을 설정하다 보니 지역적인 특성에 치우쳤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연구자가 새로운 분석 유목을 설정하여 분석을 했을 시 또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실제로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들이 출연자와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해 시사토론프로그램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현재 시청자들도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도 함께 병행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함께 이해를 도모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이

라 생각 된다.

넷째, 본 연구가 분석 대상 기간으로 잡은 것은 2010년 1월부터 2년간이다. JIBS의 경우 다른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비해 방영 시작이 늦었고, 개편 등의 이유로 적합한 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 이 기간이다. 그러나 2012년 1월까지 분석 대상이 되므로 최근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 분석 대상 기간 이 후 몇 번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자와 주제 선정에 있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포맷 적인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회자 교체는 있었지만 구성적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이 됐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이뤄졌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석 대상 기간적인 면에서 2년 이라는 긴 시간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삼아 실시했다는 점과, 분석 유목을 세분화 시키고 제주지역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현재 제주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개선되는 자극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시사토론프로그램이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성격을 제대로 갖기 보다는 편성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방송사가 시청률 싸움과 제작비 측면 등의 이유로 우리가 생각 하는 것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도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은 물론 한국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관심과 함께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향 제시가 가능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태완(2002). 방송3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 및 논증에 관한 연구.
- 권혁남(1998). 한국의 대통령선거 TV토론 모델 개발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호, 84-107.
- 김동윤(2011). TV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단. 『신문과 방송』 (2011년 봄).
- 김민환·한진만·윤영철·원용진·임영호·손영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김명철(2008). 온라인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0호. 2008.
- 김인영(2003). 제15·16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 논증 전략, 『스피치커뮤니케이션』 Vol.2
- 김연중(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9호.
- 김춘식(2004).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TV 토론 수사분석: Benoit의 정치 캠페인 수사 분석틀 적용. 『방송문화연구』 제16권 2호, 139-171.
- 김훈순·김은정(2002)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장르 관습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18호.
- 김형곤(2009). 공론장으로서 지역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12호.
- 구경서(2008). 선거와 TV토론정치 :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미수(2003).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KBS, MBC, SBS, E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내용분석. 방송연구 연구논문 겨울호 (p.107~145).
- 문재완(2006).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 박경숙(2004). TV 토크 프로그램의 구조와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제17호. 107~128.
- 박상호(2006). 대통령 후보 TV 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 박승관(2000).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162-194.
- 박익찬(2000). TV토론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배현석(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소현정(1995). 토론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대한 해석적 연구: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전화를 받습니다>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지현(2002). 대통령선거 TV토론에 관한 유권자 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종길(1992).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안광식(1987). 토론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 『방송연구』, 가을호.
- 이강형(2003).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유사 실험연구-200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철(2007). 프랑스 방송: 구조·정책·프로그램, 방송문화진흥총서.
- 이용호(2007).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론과 TV선거공론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철(2010). 한국선거방송토론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수(1995). TV토론과 미디어 정치: 95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비평』 16호.
- 이준웅(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호 (봄).
- 이호은(2008). 한미대통령후보. TV토론 비디오스타일 비교 연구, 방송학회 가을

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발제문.

이화생(2006).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 TV토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호.

이혜연(2011). TV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2차 의제설정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태섭(2001). 텔레비전 토론의 포맷과 절차에 대한 비교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9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오미영(2004). 토론 VS TV토론. 도서출판 역락

양승찬(1999). 텔레비전 선거토론 방송의 영향력 연구: 후보자 평가변화, 정책 관련지식, 정치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48호.

장원호(1987).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가을호. 84~90.

전영란(2004). TV토론에 나타난 선거캠페인 수사에 관한 분석: 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대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두숙(2005). 선거 TV 토론의 성과와 과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대철(1997).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역할과 계획.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383호).

정병수(1987). 토론 프로그램의 영역과 포맷. 『방송연구』 (1987년 가을).

정성호(2003). TV토론에 나타난 의제가 수용자의 의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 16대 대통령선거 TV합동토론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003).

한국언론재단(2007). 『한국의 뉴스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재단.

홍성욱(2006).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및 주제 선정 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경보(2006). TV 시사 토론프로그램이 수용자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미디어경제와문화』 2006년 겨울호 제4-1호.

## 2. 국외문헌

Campbell, J.E. (2000). The American Campaign: U.S presidential



campaigns and the national vote. TX: Texas A & M University press.

Blumler, J.G. (1970). "The Political effects of Television." in J. Halloran(ed).

Gans. H. (1979). Deciding what is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Habermas J. (1962). Struktuwandel der offentlichkeit. 한승완 역(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Jamieson, K.H. et al. (1993).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종욱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 한국언론재단.

Livingstone. S. M. & Lunt, P. K. (1992). "Expert and Participation in Television Debates: Talk on Television. 김응숙 역(2000). <텔레비전 공중>.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McCombs. M. and Estrada, G. (1997), The news media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 In s. Iyengar and R. Reeves, des., Do the Media Govern? Politicians, Voters, and Reporters in America, pp. 237-247. Thousand Oaks, Calif: sage.

Mill. J. S. (1859). On liberty. 서병훈 역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Napoli. P. M.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 Autumn. 7~34.

### 3. 기타

여성가족부 정책 자료 통계,  
 제주도청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통계청 표준직업분류  
 KBS제주방송총국 창사 60년사  
 제주문화방송 30년사  
 2012년 JIBS 창사 10주년 기념사

## ABSTRACT

# A Study on Jeju Area TV debate program's theme and its panelist characteristics

Myeong-Ji Jin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V debate programs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onflict generating social issues in order to really understand the problem, by sharing and expressing the diverse opinions on both pros and cons. Thus, the receivers can have the judging grounds to understand the social problems correctly, which will influence on forming the public opinions in the right direction.

The local broadcast debate programs in particular can raise its existing values by playing the public sphere role to form the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opinions regarding the local community's facing problems and issues. If so, we wonder if the three broadcast companies in Jeju area with their debate programs are doing their job alright, to fulfill the discussion programs' essential purpose, to play the role of forming the proper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opin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me and the panelist selec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two things —one, if the themes TV debate programs deal with represent the local community's problems, and two, if the panelists in the TV debate programs properly represent respective opinions,—can really evaluate the debate program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we took as subjects the three Jeju area broadcast companies'—KBS Jeju broadcast, JIBS, and Jeju MBC—respective debate

programs <Focus diagnosis Jeju>, <Jeju Agenda Direct discussion>, <Diagnosis of current affairs> for analysis for the period of 2 years from January 1, 2010 to January 31, 2012. We processed the debate programs' 2 year broadcast data, the material of 244 sessions, analyzing the panelists sex, age, occupation, and the theme pattern, theme characteristics, etc.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processes.

In Jeju area the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the economic activities is record number 1 in the country, with the number of women public servants being 1,263 out of total 4,263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anuary 31, 2013), with total rate 29.7%. Also, above the 5th grade women managers cases record 56 out of 511, 11%. Regardless of this high rate, in analyzing the debate program panelists sex, debate program women panelists ratio was merely 6%~7% , which is extremely low. In age aspect as well, the panelists in their 40s~50s were the absolute majority, with much lower 20s, hardly voicing the young generation.

In the panelists' occupational clusters, the rates for the university professors and the public service workers, politician, expert were the majority, which is the elite classes mainly, not voicing the occupational clusters' in uniform distribution.

In the debate programs' theme analysis,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 problems take more than 60%, leaning greatly. Among the 20 themes risen during the analysis period as major issues, 13 themes were dealt with as the theme in the debate program. However, they were hardly the themes that deal with major issues, such as 'offshore wind', 'Tomladae site disposal dispute', 'Woo Keunmin personnel policy', 'Japan radiation Jeju influx emergency', 'Jeju area price fluctuation Nation's number 1', or 'Jeju Island's relative development business corruption problem'.

As these analysis results imply, Jeju area debate programs mainly represent the middle-aged male panelists, with the frequent theme of public policies and

Jeju economy related stories, leaving out the women panelists in unequal opportunities, not voicing the class in every group, hardly playing itself a role of socially public sphere.

In order for them to play its intended role as a public venue for the Jeju Islanders' opinions and communication, equipped with the debate programs' proper roles and functions, they need to get out of the weighted panelists and the partial theme selection and be reborn to endeavor for the mature discussion culture to really represent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debate programs characterized with diversity.

Subject: TV discussion, debate program, local broadcast, public sphere, discussion theme, panelist

[부록 : 코딩지]

1. 일련번호

<토론프로그램 형식 및 주제>

2. 방영 날짜

(여섯 자리 수로 표기 / 예: 2010년1월1일자의 경우 -> 100101로)

3. 방영 프로그램

①KBS제주 집중진단      ②JIBS 직격토론      ③제주MBC 시사진단

4.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① 정치   ② 경제   ③ 사회   ④ 환경   ⑤ 문화   ⑥ 교육   ⑦ 기타

■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대분류) 유형

① 정치: 각종 공공정책 및 사업, 지방행정 및 의회활동, 지방선거관련 내용

② 경제: 1차산업(농·목·임·어업, 농·수·축산물 가격, 농산물 수출문제 및 유통문제 등)

2차산업(제조업, 가스·전기업, 건설업 등)

3차산업(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등)

③ 사회: 건강, 복지, 노인문제 및 일자리문제, 인물 등

④ 환경: 환경과 관련된 문제,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문제, 쓰레기 문제 등

⑤ 문화: 학술 행사 및 세미나, 문화예술 행사(축제, 공연, 음악회, 전시회), 종교 활동 등

⑥ 교육: 학교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 입시, 초·중·고·대학 교육정책

학교폭력 및 교육환경문제 등

⑦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방송사 개국 관련 내용)

5.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유형 세분화 □□

- ① 공공정책 ② 지방행정 ③ 지방선거 ④ 의회활동
- ⑤ 1차산업 ⑥ 2차산업 ⑦ 3차산업 ⑧ 건강/복지 ⑨ 인물
- ⑩ 환경오염/경관훼손 ⑪ 축제 ⑫ 교육 ⑬ 기타

■ 토론프로그램의 주제(소분류) 유형

- ① 공공정책: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 ② 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각종 행정 시책 및 사업
- ③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2010년 6.2지방선거 등)
- ④ 의회활동: 예산·조례·제정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⑤ 1차산업: 농·목·임·어업, 농·수·축산물 가격, 농산물 수출문제 및 유통문제 등
- ⑥ 2차산업: 제조업, 가스·전기업, 건설업 등
- ⑦ 3차산업: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등
- ⑧ 건강/복지: 도민의 건강 관련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
- ⑨ 인물: 인간 개인에 대한 소개, 미담, 유명인 업적 소개 등
- ⑩ 환경오염/경관훼손: 환경과 관련된 문제,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문제, 쓰레기 문제
- ⑪ 축제: 지역 축제, 탐라문화제 등
- ⑫ 교육: 입시, 초·중·고·대학 교육정책, 학교폭력 등 교육환경문제
- ⑬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KBS제주방송총국 개국 60주년 관련 내용)

6. 주요이슈 주제 □□

- ①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캠페인) ② 해군기지 ③ 6.2지방선거 ④ 제주특별법
- ⑤ 구제역 ⑥ 제주영어교육도시 ⑦ 신공항 및 해저터널 ⑧ 한미FTA
- ⑨ 혁신도시 ⑩ 영리병원 ⑪ 탐라대 부지 매각 ⑫ 트램(노면전차)
- ⑬ 우근민 인사정책 ⑭ 일본 방사능 제주 유입 ⑮ 해상풍력

- ⑯ 아파트 고분양가 ⑰ 경빙사업 ⑱ 제주물가상승률  
 ⑲ 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비리 적발 ⑳ 우근민 최측근 감사위원장 내정 ㉑기타

7. 토론프로그램 주제 특성 (토론 진행의 갈등 여부)

- ① 갈등·논쟁적 ② 비갈등·비논쟁적

① 갈등·논쟁적

: 토론 주제에 대해 상호 대립되는 주장이나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토론 출연자가 2인, 3인, 4인, 5인 그 이상의 경우에도 대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출연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갈등·논쟁적으로 간주함)

② 비갈등·비논쟁적

: 상반되는 이해관계 및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 정책 관련 내용, 제주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

8. (7번에서 갈등·논쟁적일 경우만)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여부

- ① 찬성의견 제시 ② 반대의견 제시 ③ 중립적 의견제시

구분	성별
출연자1	
출연자2	
출연자3	
출연자4	
출연자5	
출연자6	
출연자7	
출연자8	

<출연자 특성>

9. 출연자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구분	성별
출연자1	
출연자2	
출연자3	
출연자4	
출연자5	
출연자6	
출연자7	
출연자8	

10. 출연자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대

구분	연령
출연자1	
출연자2	
출연자3	
출연자4	
출연자5	
출연자6	
출연자7	
출연자8	

11. 출연자 수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⑥ 7명    ⑦ 8명

12. 출연자 직업분류

- ① 교수    ②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  
 ③ 경찰/법조계    ④ 의료계(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⑤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인)    ⑥ 광역·기초단체장  
 ⑦ 공무원    ⑧ 언론인    ⑨ 시민단체(사회 변화, 개선을 목표를 한 단체)  
 ⑩ 교육계    ⑪ 일반사회단체(자생적 조직단체 구성원)    ⑫ 1차산업종사자  
 ⑬ 2차산업종사자    ⑭ 3차산업종사자    ⑮ 문화·예술·종교계  
 ⑯ 공기업인    ⑰ 학생    ⑱ 일반인    ⑲ 기타(구체적으로                    )



- ① 교수 대학·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②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등
- ③ 경찰/법조계 경찰,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④ 의료계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 ⑤ 정치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인
- ⑥ 광역·기초단체장 도지사, 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⑦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 ⑧ 언론인 신문사, 방송사의 기자 혹은 논설위원 등
- ⑨ 시민단체 사회 변화, 개선을 목표로 한 단체 구성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여민회 등)
- ⑩ 교육계 교육감, 교장, 초·중·고 교사
- ⑪ 일반사회단체 자생적 조직단체 구성원  
(각종 기업 및 협동조합, 각종 연합회 및 협회, 노동조합 등)
- ⑫ 1차산업종사자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종사자
- ⑬ 2차산업종사자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종사자
- ⑭ 3차산업종사자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상업 종사자
- ⑮ 문화·예술·종교계 작가, 화가, 음악가, 종교인 등
- ⑯ 공기업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의 근로자들
- ⑰ 학생 대학생 등
- ⑱ 일반인 마을주민, 이주민여성 등
- ⑲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구분	직업
출연자1	
출연자2	
출연자3	
출연자4	
출연자5	
출연자6	
출연자7	
출연자8	

##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뵈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의 제가 있기 까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항상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이끌어 주신 마음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지도하시어 지금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지도를 해주신 고영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음 속 깊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겠습니다. 또한 항상 많은 지식과 가르침을 주시고 미흡한 논문을 다듬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경숙 교수님과 최낙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학부생 때부터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 지도해주시며 언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김경호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마다 항상 관심과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양원홍 선생님, 이지현 선생님, 이서현 선생님, 박군방 조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생길 때 마다 힘을 주었던 나의 친구들 민경이, 은성이, 주희, 영설이, 유선이, 우리, 란이, 주연이, 나래, 가슬이, 은정이, 윤정이, 혜경이, 지은이, 경우, 혁훈이, 남호오빠, 그리고 제주대학교 7기 홍보대사 친구들, 대학 선후배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후돈씨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주시는 시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같은 시기에 타지에서 논문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혜정 아가씨와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항상 저를 챙겨주려 노력했던 언니와 형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미처 지면을 통해 감사의 글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이 저에게 주셨던 도움을 기억하고 앞으로 베풀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한 사람이 되어 보다 좋은 연구를 앞으로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지 올림